OCT 1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941 1982년 9월 30일(목)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Thursday, September 30,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영규
편 집 인 : 이석현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짜장면을 팝니다"

싸고 맛있는 짜장면 한 그릇을 사먹으면 더 좋은 한인회관이 생긴다."

토론토 한인장로교회(목사 박희민)는 사회부 주동으로 동교회 강당을 오는 3일(일)하루「짜장면식당」으로 개업, 짜장면을 팔아 수익금 전액을 한인회관 이전기금으로 회사한다.

식당 영업시간은 동 교회 예배가 끝난 뒤인 하오1시~3시까지. 선착순 1천그릇에 한하며 가격은 $3.50씩. 시중음식점의 짜장면값이 $5~6이므로 거의 반값인 셈.

조리사는 장로교회 사회부원인 차선겸, 강찬영, 서동원, 서해석, 김종인, 김청자씨 커플이다. 이들 조리사들은 D데이를 앞두고 수일전부터 준비에 골몰하고 있다. 요리과정도 과정이지만 짜장면 1천명분을 준비하자니 양적으로 굉장하다.

장로교회 사회부가 이같은 기발한 아이디어로 회관확장이전모금에 호응키

한인장로교회서 $3.50씩

한인회관 이전모금 위해

로 한 것은 조한철 이전모금위원장의 협조의뢰를 받은 후, 효과적 각종 모금방법을 고려한 사회부원들은 대부분의 한국교회 교인들이 예배후 출출한 공복을 메꾸고 싶어한다는데 착안, 토론토에서 가장 역사가 오랜 장로교회가 앞장서기로 한 것이라고 배형도 사회부장(장로)이 29일 밝혔다. 배부장은 한인장로교회의 예배참여 신자수가 어린이까지 합쳐 6백명이므로 약 4백명의 외부교민들이 와서 짜장면을 사주기를 요망했다. 4백명이 안올 경우 준비한 음식이 남아돌아 처리도 문제된다. 장로교회는 1천그릇을 팔 아 재료비를 뺀 3천여달러를 회사할 예정이다.

조한철 모금위원장은 28일 장로교회 사회부의 식당 아이디어에대해 "지금까지 교민 비지네스와 행사탐방으로 추진해온 모금운동이 이번 일로 크게 박차를 가하게 되기를 기대, 고맙게 생각한다. 한인회는 한인들의 단체이므로 각 교민, 각 단체가 도와야 하며 특히 교회의 역할은 크다"고 말했다.

한인회관 확장이전 모금운동이 시작된 것은 지난 6월13일 모금위원회가 결성되고부터.

현재 20 Mobile Dr.에 있는 한인회관은 교통이 불편하고, 건물이 낡아 앞으로 난방및 배관공사, 바닥·유리창 보수비등에 엄청난 비용이 들며 건물유지비의 자금자족이 안돼는데다가 매달 적자로 운영된다는 문제점을 안고있다.

특히 실업인협회가 블루어로 사무실을 옮긴뒤 연 $4,000가량 수입이 줄었다.

회관이전모금위가 지금까지 걷은 금액은 약정액을 합쳐 6만여달러. 목표액 $30만의 5분의1 밖에 안된다. 목표기한은 모금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한 7월부터 약1년뒤인 83년 7월이다.

목표액을 $30만으로 잡은 것은 같은 금액의 캐나다 정부보조금을 받고, 현 회관은 $30~$40만에 팔아 약 $100만을 확보하려는 계산과 교민세대수를 약 4,000으로 잡고 이중 약 3,000세대 정도가 세대당 약 $100씩 기부하도록 하는 계산에서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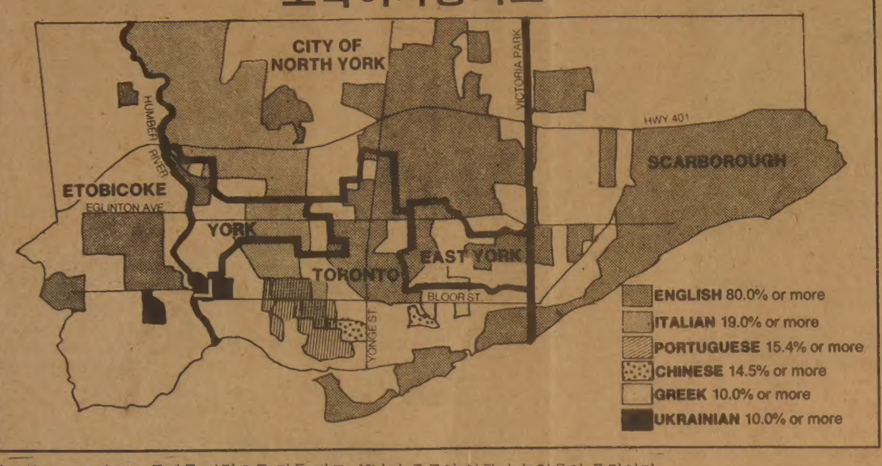
전교민에 공개될 장로교회 1일식당의 위치는 1183 Davenport Rd.(& Oakwood)이다.

회관이전모금에 관한 모든 연락은 한인회(전화 755－9288)로 하며 기부액은 모두 세금공제된다.

은하 보석
란콤화장품 대리점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귀국선물
☎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Merrill Lynch Royal Securities Ltd
금·은·증권·Bonds·RRSP에 대한 투자는
361－3428(B), 447－1374(R) : 김상욱
CANADA SAVINGS BOND는 언제나 현금으로 찾을수 있는 가장 안전한 투자대상이 된다. 이는 매년 가을에 한번씩 발행되며, 작년에는 주문이 폭주하여 마감일을 앞당겼읍니다. 저희는 이의 구입에 일체의 수수료를 부가하지 않고 모든 문의에 무료로 봉사하고 있다.

모국어사용지도



◆토론토 모국어 분포통계를 바탕으로 만든 지도. 10년간 중국어 인구가 늘었음이 특징이다.

중국어인구 4위로 급증

영어, 이태리어, 폴튜갈어 다음순

지난 10년간 메트로·토론토내에 중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중국계 인구가 급격히 증가, 영어, 이태리어, 폴투갈어 사용인구에 이어 마침내 제4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최근 온타리오 주정부가 펴낸 81년도 메트로·토론토의 모국어지도에 의하면 중국어인구는 1971년 전도시인구의 0.99%에 불과했으나 76년에는 1.66%, 81년에는 3%에 이르렀다.

이에 비해 영어사용인구는 1971년에 70.57%였으나 76년에는 69.54%, 81년에는 68%로 계속 줄어들었다.

불어는 71년 1.78%에서 76년도에는 1.44%로 줄었으나 최근 발행된 모국어지도에는 극소수 민족언어로 전락, 나타나지도 않았다.

이외에 독일어및 이태리어 사용인구는 감소한 대신 폴루갈어 인구는 늘어났다.

한국어 사용인구는 불어와 마찬가지로 "기타"난에 포함,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잡힌것이 오히려 다행?

미순찰대, "산림서 길잃기 쉬워"

지난 18일 붙잡힌 미국불법 입국자들(※토론토한국일보 27일자)이 택한 지형은 산림지역으로 길을 잃으면 찾아나오기가 어려운 숲속으로 알려졌다.

토론토교포 K씨등 8명의 한국인들을 체포한 몬트리얼 근교 미국 라콜지역 국경수비대는 29일 본사와의 통화에서 "이들이 잡힌 것은 본인들에게도 다행이다. 10년전에도 중국인 불법월경자가 숲속에서 길을 잃어 굶었다"고 말하면서 "무척 위험한 숲속"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인들이 미국비자가 없어 밀입국하려다가 잡힌 라콜지역은 몬트리얼에서 약1시간떨어진 캐나다와 미국 국경사이의 지역으로 이 국경선에 초소등은 없다.

현재 미국 이민국에 억류중인 이들은 뉴욕주 수도 알바니에서 29일 하오 첫 재판을 받는다.

미국측 조사관은 한국서온 캐나다 방문자들을 밀입국 시키던 2명의 교포는 1인당 8백달러씩 받지 않았나 보고 사실여부를 추궁중이다.

돈을 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상습범으로 낙인, 형량 또는 벌금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 627 Bloor St. W.
533－8593

가구당 평균소득 연$29,923

인플레로 실질소득은 하락

(오타와)캐나다통계국(Statistics Canada)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캐나다의 가구당 연간 평균 소득은 1년전에 비해 8%가 상승한 $29,923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해의 인플레 상승률은 11.5%나 되어 가구당 실질 소득은 약3.5%가 줄었다.

이 통계에 따르면 온타리오, 알버타, 브리티시·콜롬비아등 3개주만이 가구당 전국평균소득을 상회하고 있으며 가장 높은 주는 알버타주로 $34,132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프린스·에드워드·아일런드(PEI)로 $22,409였다.

한편 지난해 개인평균소득은 $14,259로 집계되었다.

"그는 분노에 차있다."

LA타임스, 이철수씨 獄中인터뷰 게재

(LA지사)「LA타임스」는 지난 일요판(26일자) View란 머리기사에서 이철수씨(30)와의 옥중인터뷰를 실어, 그가 사형수의 대열에서, 자기가 부인하는 범행에서 자유로와지기 위해 외로운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3년반전에도 이철수씨를 면담한 일이 있는 파라키니 기자는 이씨가 그당시보다 더 분노에 찬 표정을 지니고 있다고 묘사했다.

또 스루어트·핸론 변호사의 말을 인용, 그의 제2사건인 옥중살인사건이 제1사건이 무죄로 판결됨으로써 신속히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조흥은행사무소

개업리셉션 성대

조흥은행 토론토영업사무소(소장 이원순)개업 축하리셉션이 28일 저녁 5시30분부터 약2시간동안 토론토 로열·욕 호텔에서 성대히 거행됐다.

사무소 축하리셉션에는 서울 본사에서온 이헌승 은행장과 이유상 이사 이외에 교민사회 각계 인사 220여명이 참석했다.

조흥은행 사무소는 시중은행으로의 역할을 하기까지 캐나다 경제및 금융시장조사, 캐나다 은행및 캐나다내 외국은행과 조흥은행간의 업무촉진, 캐나다교민및 정부와의 유대강화에 주력하고있다.

현재 이소장, 최은용 조사역외에 현지고용인 캐네디언 비서 1명이 근무하고 있다.

사무소의 주소는 Suite 1125, Commerce Court North, Toronto M5L 1D9 전화: 363－3448~9.

강간혐의 북한외교관

유엔본부건물로 도망

(뉴욕28일=연합)유엔주재 북한 외교관 오만철의 미국여인 강간혐의를 수사중인 뉴욕의 웨스트체스타 지방검찰은 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지 7일이 지나도록 오를 구속하지 못했다.

28일 검찰측은 북한 유엔대표부 3등서기관인 오가 외교관 면책특권지역인 맨하탄 유엔본부건물에 피신해 있기 때문에 수사관이 그를 체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유엔대표부 수석인 한시해는 오가 외교관 면책특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 유엔 사무차장실에 문의했으나 사무차장실은 "외교관 면책특권은 외교업무 수행에만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지난 5일 뉴욕 브롱크스에 거주하는 43세의 흑인 여교사를 강간하려했으며 피해여인이 오를 고소함으로서 사건화되었다.

이 사건에 대해 미국무성은 미국정부가 오의 추방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아는바 없다고 말했다.

알렌·롬버그 국무성부대변은 "이에 대해 전혀 아는게 없다"고 전제하고 유엔외교관 신분은 미국정부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유엔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외교관들이 외국에 나올 때는 부부중 한사람은 국내에 (인질로) 남아있어야 하기때문에 북한외교관들의 성생활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에 대해 한국측 외교관들은 "북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도 수치스럽게 됐다. 노스·코리안도 같은 코리안으로보아지기 때문에 우리 체면도 깎일 우려가 있다"고 걱정했다.

알비브 폭파사건

주범 자수

토론토 블루어·스트릿(영·스트릿)의 폭파당한 알비브·디스코클럽 주인으로서 폭파사건의 주범으로 수배된 해롤드·알비브(38)가 27일 미국경찰에 자수함으로써 사건에 관련된 모든 협의자가 체포됐다.

동사건으로 교포 문지식씨는 지난 17일 한국에서 토론토로 압송되어 20일 재판에서 5년 징역형을 받았다.

공범혐의의 마이클·제롤은 28일 10만달러 공탁금으로 보석이 허가되었고 주요 혐의자 찰스·야노버의 보석청원은 기각됐다.

◀사 고▶

금주말에 사진대회

대자연의 정서와 예술의 상봉!

사진협회와 본사 공동주최 아마추어사진촬영대회가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한다.

오는 10월2일(토) 상오11시 보이드·콘저베이션 공원(이슬링턴×하이웨이 7 북쪽)에서 열리는 추석맞이 단풍과 미녀의 앙상블을 렌즈에 담는 이번 촬영대회는단풍 경치가 절경이며, 시냇물이 운치를 더해주는, 촬영에 보다 알맞는 명승지이다. 거기에 아름다운 미녀들이 모델로 등장, 더욱 운치를 더한다.

이번 촬영대회 규정은 아래와 같다.

▲종류 : (1)칼라부, (2)흑백부, (3)슬라이드부
▲규격·마감 : 사진 크기는 5"×7", 10월30일 출품마감.
▲참가비 : $10(칼라필름 1통 제공)
▲참가자수 : 선착순 100명
▲시상 : 1~6등, 트로피및 부상
특선 : (최고상) 나이콘 카메라
1등 : 3각대
2등 : 후래쉬
▲문의및 접수처 : 전경수 (☎438~4435)
캅스카메라(☎534~1085)
새한칼라 (☎535~7772)
한국일보사(☎533~2361)

촬영대회 출품작품들은 합동전시되며, 입상작들은 한국일보 서울본사 발행 〈주간한국〉, 〈주간여성〉등에 소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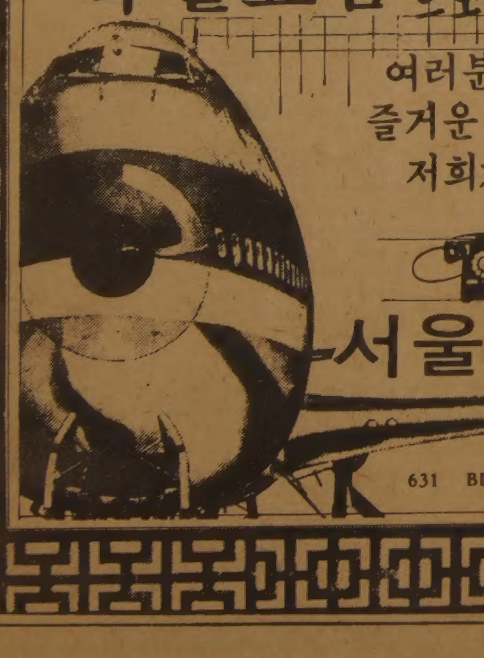
주최 : 한인사진협회
토론토한국일보사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강찬영
변호사
537－3171
537－3174
484 BLOOR ST.W.
(Bloor & Bathurst)

강화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특별요금으로 모십니다!
여러분의 便安하고
즐거운 旅行을 위해
저희가 있읍니다
최 동 주
535-6004
535 8801
서울여행사
IATA
SEOUL TRAVEL
631 BLOOR ST. W

또다시 지독한 캐나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읍니다

Although no one can really predict what will be ten years from now, one thing's a certainty: Every year, inflation makes your Florida move a lot more expensive.

That's why we suggest you consider making your first move toward the future as soon as possible. By considering buying a General Development homesite today—at our current prices and terms. Instead of tomorro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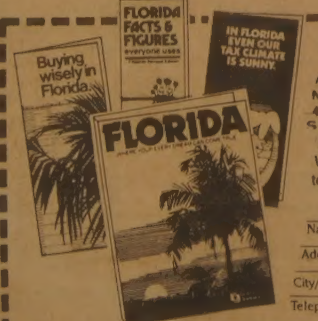
To help you look into the possibilities of this excellent hedge against inflation, General Development has prepared a comprehensive Property Information Kit about its communities as well as Florida in general.

It will answer many of the questions you might have on why to buy, where to buy and how to buy wisely. In short, it'll start you thinking. Now. Mail coupon today or call:

☎ : 661－1625
Toronto office
〈Mr. Terry Hill〉
혹은 Collect call
☎ : (1)－935－7175(B)
935－2325(R)

저를 아끼시는 웃어른·친지여러분 그동안도 안녕하시온지요. 외국부동산광고 규제법에 의해 상기부분을 영어로 알려 드림을 이해 하시기 바라오며 이번에 여러가지 좋은 조건으로 미래의「후로리다」집 또는 집터를 손쉽게 장만하실 기회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릴 터이니 원하시면 제게전화나 편지 주시기 바랍니다.

삼가 정번헌 배상



Can-Am Real Estate Ltd.
Real Estate Broker
Authorized Ontario Representative for
General Development
ATTN
MR. BEN H. CHUNG
452 LAKE St.
St. Catharines Ont L2N 4H4
Please Rush us our Property Information Kit.
We understand there's no cost or obligation to purchase.
Name
Address
City/Province/Code
Telephone Number

East AsianLibrary
Rm 3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겨울을 앞두고 한창인 도로공사로 메트로·토론토의 19개 도로구간이 요란한 소음과 함께 교통의 혼잡하다.(29일 본사사옥앞 듀폰·스트릿 공사장에서)

도로공사로 교통지장

겨울 앞두고 19개 구간

개솔린과 시간을 절약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도로보수공사로 인해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고있는 다음 도로는 피하라고 교통당국은 밝혔다.

▲하이웨이 401(이스링톤·에비뉴와 베더스트·스트릿 구간): 동서방향 센터·레인 교각보수공사로 차선과 속도 제한.

▲영·스트릿(로렌스·에비뉴와 크레이허스트 구간): 도로공사로 11월30일까지 남북간 단선운행

▲케네디·로드(패스모어·에비뉴와 스틸스·에비뉴 구간): 도로확장공사로 10월15일까지 남북간 단선운행

▲스틸스·에비뉴(와든·에비뉴와 케네디·로드 구간): 도로확장공사로 11월30일까지 동서간 단선운행

▲오코노·드라이브(페이프·에비뉴와 우드바인·에비뉴 구간): 도로복구공사로 11월30일까지 동서간 단선운행

▲듀퐁·스트릿(오싱톤·에비뉴와 셀럽스·에비뉴 구간): 도로복구공사로 11월15일까지 동서간 단선운행(토론토 한국일보사도 이때문에 영향받고 있음)

▲베더스트·스트릿(세인트·크레어·에비뉴와 에그링톤·에비뉴·웨스트 구간): 도로복구공사로 11월15일까지 단선운행

▲제인·스트릿(폭스웰·스트릿과 램톤·에비뉴): 아스팔트 공사로 10월30일까지 남북간 단선운행

▲더퍼린·스트릿(욕데일·프라자와 하이웨이 401 북쪽구간): 상수도본관 매설공사로 10월30일까지 북쪽 단선운행

▲블루어·스트릿·웨스트(프린스·에드워드·드라이브와 킹스웨이·크레센트 구간): 상수도본관 매설공사로 10월30일까지 동서간 단선운행.

▲스틸스·에비뉴(더퍼린·스트릿과 알레스·에비뉴 구간): 보수공사로 9월30일까지 동서간 단선운행

▲베이·스트릿(프론트·스트릿·웨스트와 레이크쇼어·불러바드): 보도확장공사로 커브·레인 양쪽방향 폐쇄.

▲킹·스트릿·이스트(자비스·스트릿과 셔본·스트릿 구간): 전차 궤도 교체공사로 양쪽방향 단선운행; 스맥·스트릿과 팔러멘트·스트릿 구간도 하수도 공사 때문에 서쪽방향으로 단선운행

▲퀸·스트릿·이스트(빅토리아·스트릿과 처치·스트릿 구간): 전차궤도 보수공사로 단선운행

▲스파다이너·에비뉴와 퀸스·스트릿·웨스트가 만나는 지점은 북쪽방향 2개의 노선으로 제한 운행.

▲페이프·에비뉴와 오코노·드라이브 구간: 보수공사로 서행통행

▲제라드·스트릿·이스트와 부로드뷰·에비뉴 구간: 보수공사로 서행통행

▲프론트·스트릿(영·스트릿과 베이·스트릿 구간): 보수공사로 서행통행

황해도향우회

임원개선임시총회

황해도향우회(회장 오윤섭)는 오는 30일(목) 하오6시 토론토 한인회관내 한국노년회 사무실에서 금년도 임시총회를 연다.

이날 안건은 임원개선과 협의사항이다.

회비는 없고, 다파가 준비되어 있으며 많은 회원의 참석을 바라고 있다.

이스라엘, 학살조사 승인

평화유지군, 난민촌내 진지구축

(예루살렘)베긴 이스라엘수상과 그의 내각은 국내외 압력에 굴복, 베이루트 난민촌 대학살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실시를 승인했다.

단·메리더 내각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내각은 28일 "이스라엘 정부가 무엇인가 감추고 있다는 거짓소문을 종식시키기 위해" 국가조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만장일치의 합의를 보았다고 발표했다.

이 성명에 따르면 각료를 포함한 모든 관리는 국가조사위원회에 소환되면 성실히 증언해야 한다.

국가조사위원회는 이스라엘 내각이 기독교 팔랑헤 민병들의 난민촌 진입을 허용한 결정을 내렸는지의 여부와 그외 난민 학살과 관련된 어떠한 정치 또는 군사활동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게 될것이라고 성명은 밝혔다.

한편 로이터통신과 AP통신 보도에 의하면 불란서와 이태리 평화유지군은 28일 11일전 수백명의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기독교우익분자들에 의해 학살된 서베이루트의 2개 난민촌내에 진지를 구축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군들이 난민촌으로 들어오는 동안 평화유지군의 제3진인 미해병대는 해안에 남아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수도에서 철수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민간인 보호임무를 수행할 3개국 평화유지군은 불란서군 1,100명, 이태리군 1,100명및 미해병 1,2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행사〉

신세계여행사 .. 536-2155
서울여행사 535-6004
제일여행사 535-2377
북미여행사 366-0960
천우여행사 928-3335

"역시 남자가 많이 마셔"

여성음주 남성의 1/3, 사회학자 주장

여성해방운동의 영향과 여성의 직업전선에서의 압력이 가중되고 있어 얼핏 여성 알코홀중독자들이 늘어났다고생각들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 연구결과 드러났다.

중독연구재단에서 일하는 퀸즈유니버시티의 사회학 교수 로버타·페렌스여사는 여성음주자들중 5%만이 『심각한 상태』의 알코홀중독자로 이 숫자는 남성의 3분의1에 지나지 않으며, 최근 26년간 이 비율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여성 직업인이 많은 때이지만 여성들의 직업은 «역시 교사, 사무직, 도서관직원등 음주가 경멸을 받는 직종으로 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27일 시작된 중독자각주일(Addiction Awareness Week)을 맞아 연구결과를 발표한 페렌스여사는 또 여성들끼리 모일 경우, 또 남성들끼리 모이는 경우보다 남녀공석일 경우 "보다 덜 마신다"고 밝혔다.

최근 수년간 공공기관등의 계몽으로 음주및 흡연으로 인한 위험에 대한 자각이 늘긴 했지만 가장 효과적인 음주감소방법은 역시 술값을 크게 올리는 것이라 주장한 페렌스여사는 1945년에 비해 82년도의 음주및 흡연비는 5% 감소했다고 말했다.

◆정 정◆

28일자 2면 경로잔치 사진설명중 노래부르는 할머니를 「김방울」이라 한 것은 「고방울」의 잘못이기 바로잡습니다. 당일 사회자는 「고방울」할머니를 "김방울할머니가 나오셨다"고 발언, 본사측은 기사에서 "김방울"이라고 게재했읍니다.

교민동정

◆서만수(「한인회보」 편집장)=토론토 한인회주최 "청소년예술제"의 산파역을 맡아 더욱 바빠졌다.

이곳 한인이민사 15년중 1.5세들의 대대적 첫 모임의 광장을 다양하고 푸짐한 내용으로 엮기 위해 준비위원들과 더불어 온갖 머리를 다 짜는 중이라고.

◆정번헌(전 토론토한인회 부회장)=부동산 소개업에 착수, 활약중인데 이번에 미국 후로리다의 집이나 집터 마련 중개에 주력하고 있다. 교포들의 미래구축에 관심 많기를 기대한다고…(연락처: Mr.Ben H.Chung, 452 Lake St, St.Catharines Ont, L2N 4H4)

◆조성호(액자가게 경영)=지난주 한국으로부터 동양화, 서예등을 표구하는 재료를 다량구입, 서양액자뿐 아니라, 표구·족자도 만든다. 많은 애용 바란다고.(Picture Frame Warehouse 전화 746-2120)

"멀고도 험난한 해방의 길"

가사의 71.5% 여성이 맡아

토론토 가정통계 결과

여성해방운동과 대부분의 여성들이 직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사일과 가정내 지저분한 일은 여전히 여성들이 맡고있음이 통계에서 드러났다.

유리연구소(Urie Research Inc.)가 메트로·토론토의 가정주부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통계조사한 바로는 가사일의 71.5%를 여성들이 맡고 있고, 평균연령은 30세, 자녀수는 1.1명(자녀의 평균연령은 7세). 조사에 응한 여성의 90%가 하루 평균 6.8시간을 집밖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사일의 비중을 1에서 10으로 나누어 가장 하기 싫은 일을 1로, 해볼만한 일을 10으로 잡았을 때 20%의 여성들이 다림질과 오븐소제를 1로 잡았고, 그 다음이 진공소제및 카페트청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일, 육아등 다른 자신의 일과 비교할 때 가사일의 비중은 얼마나 되는가 하는 질문에서는 여성의 연령층에 따라 반응이 달랐으나 평균점수는 3.5였다.(여성의 할일 전체를 10으로 놓고 볼때).

연령이 높을수록(40대) 가사일의 비중도 4.6으로 높았고, 가사일의 분담율도 높아 78.6%, 직장일 근무시간은 7시간이었다.

남녀동등과 가사및 육아에서의 해방을 부르짖는 여성해방운동의 앞날은 멀고도 험난할 뿐?

◆직장에 돌아와서는 집안일의 대부분을 부담해야 하는 여성의 고달픔은 캐나다가정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않다.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1982 회계년도 수입지출 결산서 (1981.10.1~1982.8.31)

수입합계 : 169,296.86

지출합계 : 111,192.95

차기년도 이월금 : 58,103.91

● 수입

장	관	항	목	예산액	결산액	비교 증	비교 감	수입내역
수입	회비수입	회비수입	회비수입	17,500	25,200	7,700		회비납부 504명
			공탁금	2,000	2,000			2회장단후보
	이월금	이월금	전년도 이월금	32,052,54	32,052,54			
		수입	빵	30,800	37,449,45	6,649,45		Corporate Foods General Bakeries
			아이스크림	18,000	18,110,68	110,68		York Ice Cream
			밀크	19,250	33,344,13	14,094,13		Rosen(Silverwood) Sealtest Beatrice
			잡지	3,600	5,343,98	1,743,98		ICN F.D.A.
		광고수입	광고수입	6,000	3,351,50		2,648,50	Skyway Business Machine 외 7개회사
		기타수입	기타수입	10,500	8,154,76		2,345,24	Halton Caird Insurance Modena Hosiery Johnson Nuts Copy Machine사용료
		이자수입	이자수입	3,600	4,289,82	689,82		$36,000정기예금 이자
수입합계				143,302,54	169,296,86			

● 지출

장	관	항	목	예산액	결산액	비교 증	비교 감	지출내역
지출	협회	직원인건비	직원인건비	31,170	30,240,04		929,96	사무장, 사무원 2
			상여금	4,300	3,330,47		969,53	사무장, 사무원 CPP,UIC Share OHIP Bonus & 휴가비
		협회운영비	사무용품비	2,000	1,817,17		182,83	Copy Paper등 사무용품구입
		협회운영비	사무잡비	500	1,065,62	565,62		구독료,은행수수료 전기료, 사진현상, 기타 소모품 구입
			비품구입비	5,000	5,835,19	835,19		회의실집기, 에어콘 캐비넷, 청소기, [illegible] Coffee Maker Carpet Drapery
	운영비	옥외행사비	회원친목비	3,000	2,159,41		840,59	제1회 친선배구대회 참가 제2회 골프대회 보조
		옥내행사비	옥내행사비	2,000	2,367,78	367,78		실협교육세미나 사무실 이전리셉션
		회의비	이사회비	2,000	2,633,13	633,13		정기이사회 이사회 분과위원회
			임원회비	2,000	1,861,80		138.20	정기월례회 임시 임원회의
			총회비	4,000	4,623,25	623,25		81년 총회시 Dinner Fee, Sign Security Guard수고료
		포상비	포상비	1,000	773,35		226,65	12개 이사감사패 7개 공로패
			기념품비	1,000	421,48		578,52	교육세미나강사진께 감사패 각종행사 기념촬영
		공공요금	임대료	5,000	4,045,00		955,00	사무실 임대
			전화료	1,500	1,644,85	144,85		상담실용전화증설
			우표	2,000	2,108,82	108,82		우편료 인상
			보험료	500	42,50		457,50	Cheque machine보험
			어카운터	1,500	1,570,00	70,00		Audit Fee & Service
		협동조합추진비	협동조합추진비	11,282,54	.00	·	·	없음
			협동조합연구비	5,000,00	407,35	·	4,592,65	협동조합추진위원회.회의
		판공비	기부비	7,000,00	6,959,77	·	40,23	캐라반행사에 pop225case 한인회경로잔치 장학의밤 외 24개행사
			경조비	2,500,00	1,656,05	·	843,95	32회 경조화환
			대외활동비	5,000,00	3,049,15	·	1950,85	Oshawa지부모임외 18회
	활동비	활동비	출장여비	2,000,00	1,475,83	·	524,17	전 조사부장, 전협회장 상공의날 참석
			상담실비	7,000,00	4,686,68	·	2,313,32	상담실장 Wage
			기획조사비	3,000,00	1,661,95	·	1,338,05	Logo Sticker 3150매 여론조사 통계분석
		홍보비	실협뉴스	18,350,00	18,422,50	72,50		3개신문 실협란
			일반광고	2,700,00	1,683,96	·	1,016,04	한인주소 광고및8회[illegible]
			출판인쇄비	2,500,00	2,673,34	173,34	·	투표용지등 선거준비물 연차보고서 600매 연하장 회장단, 이사장단 명함 사무실이전리셉션 초청장 기타제반서류 인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8,500,00	1,976,51	·	6,523,49	Part-time fee (Coupon 처리) CU 기금계산 사무실이전 비용 전화가설비 & 1개월분 선불 ※사무잡비외 10개항목 예산초과금 전용지출
지출합계				143,302,54	111,192,95	초과지출 항목은 7월17일 제3차 정기이사회에서 심의, 통과되었음.		

실협 뉴스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제공—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627A Bloor St. W.
Toronto, Ontario
M6G 1K8
Phone: 533-7923
533-8344

연도말 감사보고

"제반사무 잘 처리"

지난 24일 하오4시부터 7시30분까지 실업인협회 사무실에서 사무감사와 회계감사를 실시하였다.

◆사무감사

1. 업무일지, 회원명부, 수신및 발신철, 쿠폰처리철, 상담일지등 모든 서류들이 잘 정돈, 구비되었고, 제반 사무가 잘 처리되고 있음.

2. 한두가지 제안을 한다면

(1)협회 회비납부 영수증을 한글과 영문으로 병행 사용했으면 편리하겠음(사무경비의 영수증으로도 사용가능). 그리고 회비납부 연도가 기재되지 않고 있음.

(2)Complaint 상담처리 내용의 좋은 실례를 「실협뉴스」란에 소개하면 많은 협회원의 공감을 얻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

(3)회비징수에 있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만기제보다는 연도제가 사무처리상 효과적일 것으로 봄.

◆회계감사

1.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잔고가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어 있었으며, 수치에 있어서도 하자가 없었음.

2. 은행통장및 관계철을 통하여 1982년8월31일 현재 잔고 $58,103.91이 확인 되었음.

3. 수입에 있어서 예산액보다 초과된 것은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이라 사료되며, 지출에 있어 초과된 항목은 사무실 확장이전에 따른 것이나 여타지출은 예산된 범위내에서 사용되었음.

4. 수입지출및 잔고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위하여 연2회 작성되는 회계사의 예산결산서를 매월 점검하도록 할 것이 요망됨.

1982년 9월24일

감사 서동준
감사 함덕상
감사 고정배

◆좌로부터 stanton, 전윤식, 김이열, Stephen, Ricketts 제씨

비쌀수록 외설도 높아

—경찰당국과 회담—

지난 27일 협회사무실에서는 경찰측 Inspector William Stanton(Public Affairs Bureau)을 위시한 5명의 관계자와 협회측에서 차선겸 회장, 김태진 이사장, 전윤식 이사, 김이열 부회장, 강공선 상담실장의 5명이 회동하여 근간 강화되고 있는 외설잡지 단속에 관한 문제를 약 2시간에 걸쳐 진지하게 의논하였다.

회담의 주요내용을 간추려보면 아래와 같다.

1)경찰이 단속에 나서는 것은 대개 시민(손님)의 항의(Complaint)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므로 아이들의 손이 안 닿는 높이에 Blinder로 가려서 진열함으로써 이를 피하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나, 이로써 "판매를 목적으로 한 외설잡지의 소지"라고 하는 고발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대개 중심가보다 외곽지대의 손님들의 항의가 더 많은 것도 유의해 두어야 한다.

2)항의를 받고 경찰이 해당상점에 나가면 대개 이러이러한 책은 "외설"(obscene)잡지인 것같다고 의사표시를 하고 돌아갔다가 1시간 내지 2~3일내에 다시 돌아와서 아직도 팔고 있을 때에 정식고발을 한다. 단 법적으로 그러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형법상 "의식적으로"(knowingly) 외설잡지를 판매할 때에 입건이 되므로 경찰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제거하지 않으면 "의식적으로" 판매한 것이 법정에서 입증된다.

3)잡지 공급자들이 스스로 구성한 Ontario Advisory Commission의 검열을 거친 잡지는 고발대상에서 제외되나 일부의 잡지, 또는 소상인들은 이를 거치지 않고 시중에 내놓고 있으므로 외설잡지 여부에 대한 분별책임은 공급자뿐 아니라, 소매업자 자신에게도 있다.

자유기업의 원칙상 회사명을 지적할 수는 없으나 온타리오내의 약 17개 업자중에서 "이름 있는"(reputable)회사의 잡지만 거래하는 것이 유리하다.

4)잡지의 가격으로 보아 약 $5 이상의 잡지면 외설잡지에 속하기 쉽고, 비싼 것일수록 결정적으로 고발대상이 된다. 봉한 잡지에 대해서도 소매업자가 뜯어보고 "외설"여부를 가려서 판매여부를 정해야 한다.

5)회원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외설잡지의 표제에 대해서는 모든 잡지가 다 Ontario Advisory Commission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그 리스트를 작성할 수 없고, 같은 표제라도 2월호는 해당되고, 3월호는 해당 안되는 수가 있다.

6)"외설"여부를 가릴 수 있는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

매우 까다로운 문제지만 대체로 형법에 의한 기준은 1.반나체, 2.전나체, 3.이성간의 유사성행위등은 "외설"에 속하지 않고, (1)동물과의 유사성행위, (2)신체에의 물체 삽입, (3)직접성행위, (4)야수적인것, (5)아동의 춘화등은 obscene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7)"외설"은 그림뿐 아니라, 글에도 적용된다. 소설의 일부에 들어있는 내용은 무방하나 매페이지마다 씌어진 내용의 서적은 대상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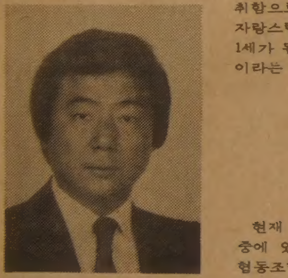
이상 3주에 걸친 조사분석을 통하여 회원들은 그 윤곽을 판단하고, 가급적 불미한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줄 것을 협회는 바라고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실협의 협동조합 설립에 대하여—

상호협조와 인내만이 성공의 길

실업인협회장 차선겸



실업인협회장 차선겸

지난 10개월간 저희들 집행부는 회원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코자 수많은 제조업자 내지는 도매업자들과 더불어 200여회에 걸쳐 협상을 해왔읍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위협도 해보고, 때로는 호소도 해보지만 예외 없이 언제나 부딪치는 장벽은 "Power of control(협회의 의사결정에 따른 회원들의 단체행동력)의 결여"였읍니다.

설사 협상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너무나 일시적이고 단편적이었으며, 우리들의 주장에 비하면 빈약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읍니다.

나날이 힘들어져만 가는 우리들의 경제적 주위환경속에서 개개인의 회원들이 완전소유권을 유지하면서 상호 최대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협동조합의 설립에 의한 대량 공동구매(bulk-Purchase)가 아닌가 싶읍니다.

지금 우리 협회는 협동조합의 설립과 이에 수반되는 콤퓨터의 도입화, 자체상품의 생산등 어렵고 힘든 많은 일들을 고심하고 있읍니다.

이의 성공은 오로지 여러분의 끝없는 협조와 인내에 의해서만 가능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모두 단결하여 어렵고 힘든 많은 과제들을 성취함으로써 후세들에게는 자랑스럽고 용기있은 이민 1세가 됨과 동시에 「실협」이라는 조직을 통하여 이민으로서 찾지 못하는 인간의 고차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사랑을 기대합니다.

또다른 발전의 한 페이지

캐나다한국외환은행장 최승낙

외환은행장 최승낙

현재 실업인협회가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협동조합의 설립은 우리교민사회의 또다른 발전의 한 페이지라고 생각하며 기대가 큽니다.

경제성장의 단계를 5단계로 나누어 설명한 어느 경제학자의 이론에 의한다면, 교민협동조합의 설립은 교민경제 발전의 세번째 단계에 속하는 도약의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말하면 비행기가 이륙하는 단계입니다.

이륙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동안의 노력의 결실이 맺어져 교민사회의 충분한 자금의 뒷받침, 경영기술의 축적, 협동을 통한 발전에의 강한 의지의 집약이라는 조건들이 모두 갖추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같은 교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뿌듯함을 느낍니다.

성공적인 이륙이 끝나면 교민경제 사회는 내일의 번영을 위하여 힘차게 비행하는 다음단계가 기다리고 있읍니다. 회원을 비롯하여 교민 모두가 협력하고 단합하여 안정된 이륙이 되도록 힘써야 하겠읍니다. 그러나 일단 협동조합이 설립되면 거기에서 오는 이익은 명실공히 조합원과 교민사회 전체의 이익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성장은 단 한사람에게도 불이익이 되지 않으면서 거의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노벨 경제학수상자인 토빈교수의 주장도 있듯이 협동조합의 설립이 우리 교민사회의 협동정신과 단결력을 과시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협동조합의 태동을 진심으로 경하하고, 이의 발전을 위하여 기회가 오는대로 미력이나마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범교민적이어야

실협이사 구연원

실협이사 구연원

협동조합이란 자본주의 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거대한 자본의 위력에 눌림을 당하고, 피해를 입는 경제적 약자들이 그자본의 지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체라고 할 수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우리들의 영세상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서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긴요하고 보람있는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민족도 단결할 수 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이 캐나다사회와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겨 놓게 되기를 열망해 마지않습니다.

더우기 근간에 많은 수퍼마켓들이 서로 치열한 경쟁속에서 덤핑을 자행하고 있으며, 또한 각 체인스토아들도 예전과 달리 가격인하 경쟁이 계속되는 이때를 맞아 우리 한인실업인협회에서도 빠른 시일내에 그 대책과 방법이 요망되던 차에 협동조합을 설립, 추진한다는 것은 참으로 의의있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이러한 협동조합은 산업자본 순환의 보조자로서 필요한 존재이며, 또한 소상인에게는 상품유통의 매개자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또한 중간도매상을 축출하고, 그 이윤을 우리것으로 한다는 것은 본원적인 자본의 축적과 함께 우리의 힘을 키워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 거족적인 사업을 추진함에는 여러가지 난관과 시행상의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길만이 우리의 생존권을 강화하고 불안하고 변천하는 경제상황속에서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면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할지라도 이 길을 개척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아닐까요. 오늘날 지상의 낙원이라고 불려지는 덴마크의 국민경제는 그 배후의 조직적이고 체계화된 협동조합운동에 기인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하게 됩니다.

그동안 오랜 시일에 걸쳐 이 과제를 놓고 꾸준히 검토하고 추진해 주신 역대 회장단과 현임원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끝으로 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누구에게나 납득이 가는 범교포적으로 설립되기를 바랍니다.

성장하는 우리 실협

성공하는 나의 사업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년$99. 월$9. 영구구독: $50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새로 개업한
서울식품 서부지점
★배추김치·총각김치·파김치·부추김치·오이소백이
※좋은 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합니다.
☎: 243-9544
1391 WESTON RD

훼밀리·닥터
(의사 왕운린)
(B) 968-1543·(R) 363-9196.
600 SHERBOURNE ST. #402
월~금: 오전10시~오후7시
토: 오전11시~오후3시

533-2361

한국비디오센타
— 각종 비디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신용본위
— 비디오 기게·TV판매
☎ 532-0210 손병헌

정기총회공고

결산보고, 예산심의와 함께 우리의 오랜 숙원인 "협동조합"을 탄생시키는 중요한 안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많은 회원의 참석을 요망합니다.

◆일 시—1982년 10월22일(금)
오후 6시

◆장 소—Inn on the Park Hotel
Centennial "D" Room
(Eglinton & Leslie)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한인 추계골프대회

일 시 10월2일(토) 오전11시

장 소 Castlemore Golf Club
(에어포드 로드× HWY 7 북쪽)

※저녁식사는 거구장에서 합니다
회비: $35
시상: 그로스 1, 2, 3
네 트1, 2, 3등
레이디상 1, 2, 3등
*그외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읍니다.

주최 골프협회

회장 김현모

農村공업 집중育成

정부「農家소득源 개발法案」제출키로

「農工지구」指定、대폭지원
入住업체減稅…複合營農 확산

정부는 농가소득을 획기적으로 증대시켜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국민경제를 균형있게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새로운 개발전략으로 농촌공업을 집중적으로 육성·발전시키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종합적인 振興計劃을 마련, 올해부터 착수키로 했다. 또한 이사업을 뒷받침하기위해『農家所得源開發促進法案』(가칭)도 새로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쌀·보리爲主 탈피·農外소득비율 높여

25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농촌공업진흥계획은 郡또는 취업가능지역권을 한단위로 해서 1만평내외의 소규모 농촌공업지구를 전국에 대량으로 지정, 이공업지구를 거점으로 각각 그지역 실정에 맞는 농촌공업을 육성시키는것을 골자로하고 있다. 농촌공업지구에 유치되는 업종은 원자재가 농촌에서 조달되거나 제품이 농가에서주로 소비되는 업종으로서 중소기업규모에 알맞은 식품가공업, 공예품제도, 농기계제작등이다.

정부는 도로, 전기, 공업용수등 공장입지조건과 유휴노동력, 소비시장등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공업지구지정과 입주업체결정을 할 방침이다. 농촌공업진흥계획을 뒷받침하기위해 마련된 農家所得源開發促進法案은 농촌공업지구의 관리와 입주업체에대한 행정지원업무를 郡에서전부 처리할수있도록 규정하고 입주업체들에 대해서는 일정기간동안 법인세및 소득세감면, 취득세·등록세의면제등 특혜를주고 정책자금을 풀어 금융지원을 해줄수있도록 규정하고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농가소득구조가 소득의 60%이상을 쌀·보리생산에 의존하고있고 농업외소득이 전체소득의 31·8%밖에안돼 일본과 대만의 70~80%에비해 현저히 뒤지는등 문제점을 안고있어 농가소득의 구조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고보고 농촌공업의 대대적인 진흥과함께 소규모 국민휴양지와 관광지개발, 대규모 농수산물유통센터 건립등을통해 농업외소득을 다양하게 개발, 증대시켜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농업소득도 현재의 쌀·보리 위주의 단순구조를 탈피, 다양한 所得源을 개발하기위해 複合營農制를 올해부터 새로 도입, 연차적으로 확대, 보급시켜 나가기로 했다. 축산, 낙농, 과실류, 채소류, 기타 특용작물 재배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농업소득을 증대시키는 영농방식인 複合營農制는 우선 시범단지를 선정, 중점적 지원을 통해 육성해 나가면서 단계적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遺骨드러나자 痛哭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던 순간인가。남편이 학살당하고 20을 갓넘긴 어린나이에 청상과부가 되었던 田同禮할머니(85)는 생전에 남편의 유골을 찾는게 소원이었다。田할머니는 63년이란 긴 세월이 지나서야 발굴된 유골을 부여잡고 하염없이 목놓아 울었다。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면서…。【權周動기자찍음】

스즈끼、오늘 訪中

【東京AP AFP=聯合】스즈끼·젠꼬(鈴木善幸) 일본수상은 日·중공국교정상화 10주년을 기념하기위해 26일 6일간에 한정으로 중공을 공식방문 한다. 사꾸라우찌·요시오(櫻內義雄)외상등을 대동하게될 스즈끼수상은 중공방문기간중 중공지도자들과 일련의회담을 갖고 양국의 유대강화방안과 中蘇화해 가능성, 美·중공관계의 장래를 비롯한 국제문제 그리고 金日成의최근 중공방문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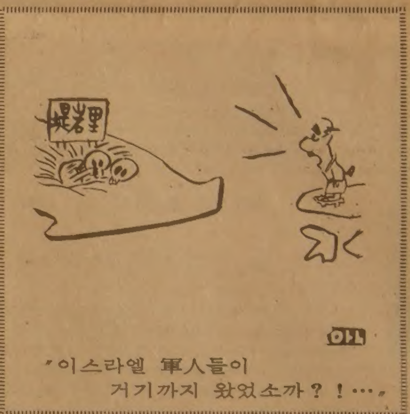
스즈끼수상은 중공방문이틀째인 27일 중공수상 趙紫陽과 6백50억엔의 對중공차관협정을 체결할것이라고 일본외무성이 24일 밝혔다. 한편 스즈끼수상은 23일녹화방영된 한TV프로에서 중공방문중 중공지도자들에게 일본역사교과서 내용중 논쟁을 불러일으킨 부분을 수정하겠다는 약속을 가능한조속한 시일내에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임을 분명히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經濟소개 약속
鈴木、李民正대표에

【東京=宋孝彬특파원】訪日중인 李載瀅한일의원 연맹회장과 李相翊간사장은 24일하오 스즈끼(鈴木)수상과 사꾸라우찌(櫻內)외상및 야스이·겐(安井謙) 한일의원연맹 일본측회장을 각각만나 교과서 歪曲의 조속한처리문제와 韓日友好친선에관해 협의했다。

26일訪中예정인스즈끼수상은『이번訪中때 중공이 12全대회에서 결정한바있는 경제개발5개년계획에대해 거론할것으로보이며 이기회를빌어 한국이 정치적으로나경제적으로 안정돼있다는점과 내년부터실시될 한국의제5차경제개발5개년 계획과함께 한국의 경제발전상을 중공측에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社會漫評



政府、팔難民虐殺 규탄

聲明발표 "철저調査·이스라엘軍철수를"

정부는 25일 西部베이루트의 팔레스타인 難民村虐殺사건에관한 성명을 발표,『최근 서부베이루트의 사브라및 샤틸라난민촌내에서 일어난 남녀노소를 포함한 비무장팔레스타인 難民다수학살사건은 인류의 비극이며 그와같은 非人道的이며 야만적인범죄행위에 대하여 대한민국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외무부의 鄭基鍾대변인은 이날 이 성명에서『한국정부는 유엔과 관계제국에 대하여 베이루트에 잔류하는 팔레스타인難民의 생명과 안전을보장할수있는 완전하고도 즉각적인 보호조치가 취해 질것을 촉구한다』고 밝히고『한국정부는 이와같은 범죄행위의 再發을 방지하기위해서도 그 책임소재를 밝혀야 한다고생각하며 이를위해 공정하고도 철저한 조사가 국제적으로신속히 행해질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성명은 이어『한국정부는 레바논의 주권과 영토보전이 존중되어야한다는 종래의 입장을 재확인 하면서 이스라엘軍의 레바논으로부터의 즉각적이며 무조건철수를 재차 강력히 촉구한다』고강조했다.

유엔、虐殺진상調査
總會서 팔要請수락

【유엔本部AP=聯合】유엔총회는 24일 서베이루트의 팔레스타인 난민촌학살사건을 규탄하면서 유엔이 이 학살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도록 요구한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의 요청을 만장일치로 수락했다.

유엔총회는 이날 유엔안보리에 대해『적절한 수단을통해 지난17일 베이루트에서발생한 팔레스타인난민및 레바논민간인 학살사건의 상황과 규모를 조사하고 그 조사결과를 가능한한 조속히 공개할것』을 촉구한 결의안을 1백46대0으로채택했다.

유엔총회는 24일 이번회기중에 토의할 1백37개안건을 확정、이를 본회의및 7개주요위원회에 넘겼다. 총회는 이중에서 포클랜드영유권분쟁、캄보디아문제、아프가니스탄사태、팔레스타인문제、중동사태、서남아시아독립문제및 남아프리카의 인종격리정책등을 본회의 토의안건으로 채택했다.

같은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포스트紙는 이스라엘軍고위지휘관들이 지난 16일밤 11시(현지시간) 샤틸라난민촌에 진입한 팔랑헤민병대사령관으로부터『현재까지 3백명의 민간인과 테러분자가 살해됐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타인난민촌 근처의 한빌딩꼭대기 테라스에 있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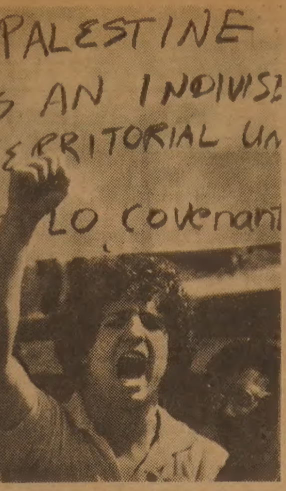
사우디警察·이란巡禮者 충돌

【런던聯·AP=聯合】사우디아라비아경찰은 24일 사우디回敎聖都 메카에서 反美·反이스라엘구호를 외쳐대는 이란회교순례자 수천명과 충돌, 이란최고지도자 호메이니옹의 대표 호자톨레슬람·무사비·호이니를 비롯한 이란고위회교성직자 3명등 1백명이상의 이란회교 순례자들을 체포했다고 테헤란방송이 보도했다。

테헤란방송은 메카에서 이날 연례순례행사에 참석중이던 이란순례자들이 反美·反이스라엘구호를 외쳐대고 호메이니옹의 메시지를 배포하면서 집단예배와 정치집회를 갖기위해 알·하람寺院에 들어가려할때 사우디경찰이 이들을막기위해 최루탄·곤봉·몽둥이를 이용, 이란순례자들을 공격해 적어도 30명의 이란순례자들이 부상했다고 전했다。

이 방송은 또 베이루트 난민학살사건에 항의키위해 데모를 벌이도록 이란 순례자들에게 23일 촉구했던 호자톨레슬람·무사비·호이니를 위시하여 아야톨라·아마드·제나티、아야톨라·모하마드·하타미등 3명의 이란의 회의원들이 이날 다른 이란순례자들과 함께 체포되었으나 사우디 보안군으로부터 수시간동안 심문을받은뒤 석방됐다고 전했다。

聖都 메카에 대한 금년도 순례행사에 참가하기위해 지금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 入國한 외국인순례자수는 85만3천5백55명에 이르고있다고 사우디내무성이 24일발표했다。금년도 巡禮행사에 순례자를보낸국가는 알제리、이집트、이란、말레이지아、파키스탄、터키、北예멘、인도네시아、이라크、리비아、니제르、나이지리아、시리아등이라고 이성명은 밝혔다。



◇「보스턴」公園의 反이示威 한 시위자가 24일 보스턴공원에서 유태계 대학생들이 주최한 베이루트민간인학살만행 규탄집회도중 反이스라엘구호를 외치고있다。【보스턴24日AP聯=聯合】

「王朝체제」保證 나들이

金日成 中共방문 10일간 무엇을했나
中共선 對蘇견제 노린 布石
의견一致강조…異見있었음 드러내

金日成의 중공방문은 그시기가 鄧小平·胡耀邦체제를 확립시킨제12全大會직후였고 鄧과 胡의 비밀平壤行이 金日成의 北京방문과 때를같이하여 공표됐다는 점에서 金日成왕조체제의 공인과 北韓·中共의유착을 의미하는것으로 이곳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소련、중공、북한등 東北亞의 공산권중에서 中·蘇가 대립하고있는 현상에서는 북한의 위치가 부각되게 마련이다。

지난17일 金日成과 胡耀邦총서기와의 회담이 있은다음 新華社통신은 정치·경제문제와 국제문제에 대해 의견교환이있었다고발표、그구체적인 내용에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그러나 金日成이 평양에 돌아가기 전날인 24일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답례연에서 金日成은 胡와鄧등 중공요인을 초청하고북한과 중공간에 모든 문제에 대해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토의된 모든 문제에대해 완전한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金日成이 새삼 강조한 것은 뒤집어 말하면 이제까지 북한과 중공간에 이견이 있었음을 드러낸것이다。북한과중공간의 이견이란 말할것도없이 金日成에 대한 개인숭배와 金正日의 세습문제、그리고 중공의 對美·日접근정책에대한 북한의 불신으로 꼽고있다。

중공은 毛澤東、周恩來체제가 붕괴되고 鄧·胡체제가 등장하면서 개인숭배사상은 일소되고 있다。이런상황에서 중공은 金日成의 세습왕조를 내놓고 지지할수없는 형편이므로 鄧·胡의 평양방문도 지난 4월 金日成생일기념파티가 끝난직후 비밀리에 실현된 것으로 보인다。

金日成은 중공당12全大會가 끝나자마자 첫번째로 중공을 방문함으로써 중공과 북한이 서로 후계체제를 승인하는 것을 내외에과시한것으로풀이된다。

중공은 북한이 소련으로 기울어지는것을 막기위해 금년들어 북한에 미그기를 개조한 A5전투기를 20대이상 제공했고 원유도 종전대로 1백만톤을 공급시키기로 약속했다는것이다。

중공이 이처럼 金日成을 북경에불러 환대하고 북한을중공세력권으로 묶어두려는것은 극동에서 우세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장기적으로 對蘇화해정책을 수행하기위한포석이라는견해도있다。지난3월브레즈네프소련공산당서기장이 對중공화해제의를 한 이후부터 中·蘇경·무역협상의 개시와62년부터 중단됐던 소련유학생의 修學등이 뒤지고 있는점이 주목된다。【東京=宋孝彬특파원】

「政治議案」異見절충

與野、내일 常委활동 앞서

국회는 27일 各常任委회의를 열고 상임위활동에 들어가나 與野간에 異見을 보이고있는「政治議案」의 처리문제를놓고 관련常委別로 교섭단체간사간에 접촉을 벌일 예정인데 民正、民韓、국민등 3黨총무는 27일상오접촉을 갖고 절충을 벌이기로 했다。

民韓黨의 林鍾基총무는 25일『27일에 있을 총무접촉시 民正黨측에 이날 운영위를 열어 국회법개정안과 정치활동被規制者解禁건의안을 다룰것과 내무위등 관련상위에서 지방자치법등 6개계류법안을 다루도록 촉구할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측이 1차상임위 활동중에『政治議案』을 다룰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民正黨측은『계류안건을 정치의안으로만 해석하는 民韓黨측의 태도를 이해할수 없다』며『상임위의제가 각당 간사회의의 합의에서 온것인만큼 정치의안은 2차상위활동중에 거론해도 늦지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문제와 관련, 民正黨은 문제점이 적거나 심사절차상 초기단계에있는 한두건의계류안건이나 정치의안은 하루정도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전해지고있다。

財產등록 公開돼야
民權、民正黨에촉구

民權黨의 李永權대변인은 24일 民正黨의 재산등록실시에 대해 성명을 발표、『民正黨 고위당직자들이 정부의공직자윤리법시행에 앞서 그垂範을 보인것은 국민적 관심을 얻고있다』고 말하고『그러나재산등록의 취지와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動產을 추가등록하고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할것』이라고 촉구했다。

公務해외출장 調整
不要·不急한것統制
金총리 지시

金相浹국무총리는 25일 公務로 해외에 여행하는 목적과 人員、기간등 허가심사기준을 강화、불필요하거나 급하지않은 해외여행은 통제토록하라고 외무부와 총무처에 지시했다。

金총리는『최근 공무원들의 해외여행에따른 사전준비나 관계기관간의 협의가 미진해 예산과 人力의 낭비는 물론、在外공관과 외국관련기관에 누를 끼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정부 각부처는 해외출장을 엄격히 조정·통제하라』고시달했다。

정부 日歪曲시정案
日측에 곧公式전달
最近世史 중점

日本의 역사교과서 歪曲에 관한 우리정부의 是正요구案이 27·28일께 일본측에 공식전달될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소식통은 25일『우리측의 시정요구안이 이제 마무리됐으며 來週初 외교채널을통해 일본정부에 공식전달될것』이라고 밝히고『國史편찬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중 사안이 중대하고 시급히 시정돼야할 最近世史부분을 중점적으로 취급한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日刊스포츠 13돌
創刊기념특집 발행

한국일보社가 발행하는 국내유일의 스포츠전문지인 日刊스포츠는 26일 창간13주년을 맞아 창간기념특집으로 20면을 발행했다。

우편신청 배달사고 533·2861

地平線

불은 번지는 性向을 지녔다。한번 타오르면 거칠이 없고 자기만족을 모른다。불에 대한하는 물체의 저항력은 생명이 없는 광물체를 제외하곤 놀랍게도 약하다。發火현상은 언제나 돌발적·폭발적 이다。노벨상 수상자인 엘리아스·카네티는 불의 성질을 이와같이 분석했다。「불길과 같은 성격」을 10대、특히 하이틴 세대에 비유할 수 있을것 같다。청소년기는 인생에서 가장 탄력적인 시기다。고무공처럼 밖으로 튀어나가려하고 유행에 아주 민감하다。만족보단 불만이앞선다。좀체 포만감을 맛보지 못한다。그러니 자칫 충동에 끌리고 외부자극에 갈증을 느낀다。

▼이들은 가정과 학교의구심력을 벗어나 밖으로끌어내는 원심력에 더 영향을 받는다。자기집에 아늑한 공부방을 두고도 사설독서실을 찾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물론 집안환경이 여의치 않아 이런 곳에서 공부를 하려는 학생도 많을줄 안다。불처럼 번지는 전염성이 강한 세대가 모이니 사설독서실엔 여러가지 문제가 생겨난다。남녀혼석、청약등으로 말썽을 빚어 경고를 받은 일이 많다。

▼학생들의 풍기문제도 소홀히 넘겨볼수 없겠다。지난 79년엔 남녀혼석을 시킨 독서실은 폐쇄할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까지 나왔다。건전한 면학·독서분위기가 지켜질수 있다면 독서실이 더 늘어 나는것을 마다할 까닭은 없겠다。지금의 주택사정과 도서관 실태론 우리의「독서공간」은 너무 비좁다。공공도서관 확충 5개년 계획에따라 도서관의 좌석수는 조금씩 늘고 있으나、내년에 가도 5만석을 넘지 못하리라 한다。

▼그러니 학생、특히 대학입학학력고사 준비에 바쁜지금、수험생들이 독서실을 많이 이용하는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된다。그런데 딱하게도 여기엔 제대로 감독·관리할 사람이 드문 형편이다。청소년문제는 다각도로 손을 써야 하겠다。이들의 폭발성을 자제시켜줄 구심력이 약하고 탈선의 유혹은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일부 디스코홀이나 주점은 오히려 단골손님으로 여기고 영업을 한다。불에다 기름을 부어대는 격이다。

▼10대 탈선의 상처는 오래가며 씻어내기 어렵다。생활환경·사회주변을 고쳐 가야 한다。어느 구석에 불건전한 그림자가 없나 살펴 보기 바란다。청소년 탈선의 불길을 끄는 소방수 역할은 어른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다。소풍철 가을이니 이런데 더 유의를 게을리 말아야 하지않을까。

한국일보
우리의建全한健全한新聞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공인회계사
이영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 각종보석
▲ 다이야몬드 품질보장
▲ 최저가격
▲ 뉴디자인
▲ 보석개조 교환매매
▲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추석대공연

오리엔탈팔레스 8주년기념

여러분의 민요가수
최정자 특별초청쇼

기간 : 9월23일(목)부터 2주간

추석을 맞아 교민여러분께 가수 최정자를 선보입니다.
친구·가족동반하시고 흥겨운 하루를 즐겨주십시요.

히트곡 :
처녀뱃사공등 수백곡

뉴서울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 • 533—1500

경로잔치에도 노년들을 위해서 가수 최정자양이 출연, 민요를 선사할 것입니다.

새로운 악단 : FIREBIRDS

한국의 참모습 선뵐 好機

내년總會유치로 본 IPU의 어제와 오늘

회원 98國 "政治人 유엔總會"

1889년 創立… 우리는 61년 첫인연
北傀공작 저지위한 해프닝 수두룩

○…국회는 정기국회 벽두에 날아든 「83년 IPU(국제議會聯盟) 총회 서울개최 결정」 소식으로 들떠있다。이같은 誘致성공은 한국議員外交 20年을 決算하는 快事라고 볼수있기 때문이다。사실 對IPU 접근은 우리의원 외교에있어 최대의山脈으로서 가장 力點을 두어왔었다。

따라서 내년 총회誘致는 北傀의 치열한 방해공작을 무릅쓰고 이룩했다는점도 그렇지만 규모도 超매머드인데다 참석자들이 各國의 영향력있는 정치인들이어서 한국의 참모습을 세계에 알릴수있는 絶好의 기회라는데 그 의의는 자못크다。

한마디로 IPU총회는 해마다 열리는 「選良들의 국제祭典」。

회원국수만도 98개국으로 西方 共産 非同盟圈등이 모두 망라돼있어 「세계 政治人들의 유엔總會」로도 불린다。

IPU의 역사는 꽤길다。1889년 파리에서 英·佛등 9개국이 모여 국제분쟁에 대한 仲裁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1894년 항구적조직으로 발전하면서 그목적도 세계각국의 의원들사이의 교류를 통해 세계평화를 증진하고 민주적제도를 키워나가는것으로 변화되었다。그러나 이목적도 이제 오래전에 褪色、近年에 와선 東西南北세력의 정치적 角逐場이 되고있다。

○…우리나라가 IPU와 인연을 가진것은 60년 12월 제5代 국회당시。당시 IPU한국의원단을 결성하고 그해 가입신청서를 제출、61년 4월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열린 제88차 이사회에서 조건부 가입이 결정되었으나 61년 5·16혁명에 의한 국회해산 때문에 회원자격정지처분을 받은 前歷이있다。

그후 6代국회때인 64년다시 가입신청서를 제출、가입의결을 받아내 지금까지 회원국으로 활약하고있으며 각국에서 2명씩 지명케되어있는 理事로는 吳世應의원(民正·정무1장관)、柳漢烈의원(民韓)이 선정되어 있다。

이에반해 北韓은 59년 의원단을 구성,가입을 신청했으나 가입안이 계속심의보류되다가 73년 東歐圈과 제3세력의 도움으로 14년만에회원국이 되어 우리보다 10여년의 격차를 보이고있다。

○…IPU총회의 특징은 각회원국이 인구수에따라 투표권이 배정되는것으로 한국은 15票를배정받고 있는데반해 北韓은 13票를 갖고있다。그래서 票가 행사될때 西方진영은 국가별、목적별로 票가 분산되지만 共産진영은 모두 同一티킷으로 행사되어 어려움이 많다는것이 작년 쿠바의 아바나총회때 대표단장이었던 蔡汶植국회 부의장의 설명이다。

초창기 IPU총회는 친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에 따라 「會議는 춤춘다」는 말들을 정도로 부부동반으로참석, 파티와 관광과 여행에 치우쳤다。총회에 참석했던 李萬雨의원(국민)은 『옛날에는 틀이 잡히지않아 각국대표의 연설정도로 끝나고 모두 놀고 마시는 경향이 심했는데 아바나대회때는 책상을 두드리고 소란을 떠는등 엄청난 변화를 보였다』며 각국이모두 國益을위해 대표단을 파견하고 있다고 그간의 변모를 지적했다。그러나 아직도 西方진영은 친선도모에 더많은 목적을 두고있는것 같다고 吳世應의원은 말했다。吳의원은 『美國의 경우 20여명의 대표단이 아예 전세비행기로 부인, 비서등을 동반하고 오는등 여행기분을 만끽하고 있으며 총회閉幕전에 떠나기도했다』고 전했다。

○…64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前·現役의원중 IPU총회및 理事會등에 가장많이 참석한 인사는 朴浚圭씨(前공화당 의장)로 24회나 단장·고문·대표등 자격으로 출석했고 現役으로는 吳世應의원의 8회로 最多참석을 기록。

그밖에 蔡汶植부의장 朴定洙(議政)、柳漢烈의원(民韓)이 각4회를、丁來赫의장이 3회、李萬雨(국민)、許景九(民韓)、高貞勳의원(議政)등이 2회를 기록하고있다。국회의원은 아니나 IPU에 관한 터줏대감은 오랫동안 국회 外務委전문위원으로 IPU를 담당했던金炳燾대통령의 전수석비서관。金씨는 64년 덴마크 코펜하겐총회에서 우리나라가 회원으로 재가입될때부터 사무처요원으로 현지에서 의원들의활동을 보조하기시작, 국회를 떠나기전까지 모두23회나 총회。理事會등에 참석, 作戰·연설문등 대표단 뒷바라지를 맡았다。

◇「83년서울총회개최」를 결의한 금년도 로마총회모습。權正達단장⑤등 한국대표단이 각국대표들의 연설을 듣고있다。

○…IPU총회등에 참가한 의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北韓의 공작을저지하기위해 그야말로 武勇譚이 많다。

특히 공산국가에서 총회가 열릴경우 그런해프닝이 더욱흥미있게 벌어진다。67년의 모스크바총회때는 蘇聯당국이 우리대표단의 入國을 거부하겠다고 밝혀 모스크바총회가 취소되기도했다。

작년 아바나총회에 참석했던 許景九의원은『쿠바가 공산국가인데다 아바나에 대규모 北韓대사관이 있어 처음에는 北韓의 위세가 당당했다』며『그러나 결과는 우리가 判定勝했다』고 말했다。吳世應의원은『우리가 묵고있는 호텔의 전화기까지 盜聽당하고 있다는 생각때문에 매우 신경을 많이 썼다』고 고충을 토로한후『그러나 政治위원회에서 北韓대표가 허무맹랑한 허위선전을 일삼아 이를 의장에게 항의하여 北韓대표를 下壇케한것이 가장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아바나대회에서 李萬雨의원은 카스트로와 만나 얘기를 나눈일을 기억하고있다。당시 카스트로수상은 2시간동안의 개막연설을 통해 西方진영을 맹격하여 서방 대표단이 퇴장하고 그후 회의에서 서방대표들의 집요한공격을 받고있었는데 印度대표가 주최한 리셉션에 느닷없이 참석했다。이자리에서 李의원은 『내가 카스트로에게 南韓에서왔다고 밝히니 그는 깜짝 놀라며 악수를 청하더라』고 회고하고『카스트로는 우리나라가 야구、배구를 매우 잘하며 88올림픽유치운동을 벌이고있는것도 알고있더라』고 전했다。또 80년 東伯林총회에 참석했던 柳漢烈의원은『北韓은 개최국이 공산국가임을활용, 政治위원회에 우리의 逐出결의안을 제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며『특히 10·26후激變期에 처한 우리의 처지를 이용하려는 저들의 底意가 얕밉기보다 사전저지에 온정력을 기울이느라 쉴틈도 없었다』고 말했다。柳의원은 그래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한후 北韓측의 危害를 피하기위해 閉會式도 보지않고 西伯林으로 빠져나왔다고 말했다。

北韓대표들의 특징은 한결같이 머리를 짧게깎고 어떤面에서는 蒙古대표보다 더욱 촌티를 낸다는것이 우리대표단들의 설명。許景九의원은 『北韓대표중 1~2명만이 우리와 접촉하고 얘기를 나눌뿐 나머지 10여명은 절대로 우리근처에 오지않았다』고 말했으며 蔡汶植부의장은 『北韓대표들은 명함手交조차 거부하는 경직성을 보였다』고 밝혔다。

○…IPU총회가 서울에서 개최될때 예상되는 문제는 바로 회의장 시설。98개 회원국중 서울총회 不參을 결정할 일부공산국가를 제외한 80~90여개국이 최소한 몇명~수십명의 대표단을 파견하고 여기에 수행원까지 포함할경우 1천여명은 수용할 대규모 총회의장이 필요하다。또 政治·軍備축소、議會·人權、經濟·社會、敎育·環境、非自治領·人種문제등 5개상설위원회와 1개의 特委및 각국의회사무총장회의까지 열리게 되어있어 회의장마련이 개최국의 難題로 항상 등장한다。

그래서 보통 개최국은 그나라 국회의 본회의장을 총회의장으로、常任委회의장을 5개常設委와 特委회의장으로 이용하는 경우가많은데 우리나라국회도 내년의 서울총회를 汝矣島의사당에서 개최할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IPU내년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토록한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불가능하게 생각했던것이다。

국회는 앞으로 면밀한준비로 제5공화국의 이미지를 세계에 부각시키는 절호의기회로서 서울총회를 活用해야할것이다。

그리고 가능한한 많은국가들、특히 北傀를 포함한 공산국에서 빠짐없이 참가할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차원의외교 노력이 뒤따라야할것이다。

88 서울올림픽을 보다 성공적으로 치를수있는 정치인 시험무대로서도 내년도서울총회의 의의는 결코 과소평가할수 없는것이다。【李以春기자】

아침에

悠久한 우리歷史
恥辱의 36年만 확대시킬 필요없어

金東旭 〈延世大교수〉

지난9월상순 일본에서 학생이 하나와서 졸업논문을 쓰겠는데 일제말에 발간된 「國民文學」이란 잡지를 보고싶다는 것이다。나는 당황하지 않을수 없었다。일제말 국내 문단과 관계가 없었던 나로서도 미묘한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같았다。일본의 대학4학년생이 우리나라 친일문학을 조사하겠다고 일부러 찾아온것이고 그 소개도 어느연구원교수의 부탁이니 안면 박대할수 없었다。그래서 모대학의 연구소를 소개하여 주었더니、그 학생이 울상을 하고 왔다。보여줄수 없다고 거절하더라는 것이다。전화를 걸어보니 귀대학에도 4~50권있는데 왜 이리로 보냈느냐는 얘기다。그래서 그것을 읽게 주선해 주었다。한참 지난뒤 일본에서 편지가 왔다。그때 그 「國民文學」을 보게해주어서 고맙다는 이야기와 더불어 그 잡지의 글을 통해서 친일문인의 심경을 연구해보겠다는 것이다。어떠한 논문이 나올것인지 궁금하다。

일본의 국회도서관분관에 憲政研究會란는 곳이있는데 여기에는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사람으로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한 사람이 일본당국자에게 낸 정탐문서가 약8만장 보관되어있다。우리나라사람으로 이것을 얻은 학자도 있다。여기에는 현재 애국지사로있는 이들이 일제에 2중으로 협력했던 모습이 역력히 보인다는 것이다。참으로 쓰디쓴 이야기다。나는 일제말 학병을 거부하고 징용을간 사람이지만 이 기록을 수집해 보려고하니 그기록이 묘연하다。친구들에게 앙케트를내도 회답이없다。이렇게 최근세의 일인데도 그완전한 기록이 모호하게 되어있는 경우가많다。

獨立紀念館설립에 따르는 기록같은것도 일방적인 정보에 의하다간 이처럼 뜻하지않을 시행착오를 겪을경우도 있을것같다。또 그전시내용을 일제36년간으로 한정한다면 무슨 신생국가의 독립기념관같이 느껴지기도 할것같다。우리에게는 유구한 역사가있는데 이 치욕의 36년간을 골라서 어두운 면만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것인가 한번 반성해 볼일이다。현재 살아있는 사람중에서도 일제에 협력을하고도 버젓하게 행세하고 있는것을 알고있는데 이들이 기념관의 설립에 적극참여하고 있는것을 보면 착잡한 심경이다。사실 그들이낸 돈을 회개의 성금으로 받기에는 이번 교과서왜곡사건의 기억이 너무나 컸다。

나는 몇해전 임진왜란때 일본군의 발진기지였던 나고야(名古屋) 城의 天主閣址에 서있었는데 7、8세되는 국민학교 학생이 아버지와 같이 와서『여기가 朝鮮征伐의 본거지야요』하고 물으니 그의 아버지는『응、그렇단다』하고 맞장구 쳐주는것을 본적이 있다。

이렇게 하나의 관념이 평성되어 놓으면 그것을 고치기에는 그 몇배의 시간이 걸린다。이번 독립기념관 건립의 문제도 교과서 왜곡이 전해지니까 왁자지껄하는 느낌도 없잖아 있다。우선 일제 36년간의 기념 도서관부터 세워 그증거보존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다。그 당시의 진실한 기록부터 면밀히 기록、보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우리나라에는 정부문서 보관창고라는 것이 있다。우선 여기 소관되어 있는 일제 36년의 기록부터 독립기념관으로 옮기는 일 부터 시작해야할 것이다。마네킹이나 만들어 관객에게 보이는 그런 차원의 독립기념관이 아니라 보다 학문적인 차원에서를 분석、검토 하면서 이런 문서류를 국민에게 공람할 수 있는 실증적인 연구적 태도도 필요하리라 본다。긍정적인 면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부정적인 면도 보존해 두어 이루어질 앞날에 역사의교훈으로 삼아야 할것이다。

이관계는 자칫하면 오해를 받기쉬운 대목이다。앞에 젊은학생이 논문테마로 채택한 친일문화인의 심리같은것은 우리가 연구해야할문제가아닐까?물론 그런저서가 몇권있기는하지만、구린내 나는것에는 뚜껑을덮어라식의 糊塗的인데에서 벗어나 정면대결의 자세도 필요하리라본다。이런면에서 우리에게 일본을 한다는 사람은 많지만、일본을 연구하는 학자가 과연 몇명이나 될것인가 생각하면 사실은 없다고해야 좋을것이다。그것은 일본에관한 값싼 소비니즘이 오히려 대중의 환영을받고있기때문이다。욕을하기전에 상대방을 연구해보겠다는 냉정한 對日觀이 필요한것같다。

내가 하고있는 회에 동북아세아연구회란는것이있다。이미 여기서는「일본문화의 源流로서의 우리나라문화」에대한 연구논문를 내고있다。그런데 기묘한것은 그런조차도 친일적인 경향이라고 몰아대는 사람이있다는데에는 아연하지않을수없다。그 사고의 근저에는 일본에 자료수집을가도 일본이나 왔다갔다하면 친일적인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다는점이다。일본에서는 과거 봉건주의의 여파로 자기와 의견을달리하는 여러사람의 존재를 인정해준다。한국에대하여 학국사람이상으로 관심을갖는이가 있는것도 사실이다。

이에 비하여 우리는 대세에 따라가지 않으면 반역자로 몰리기 쉬운 사회풍토를 가지고 있다。그래서 일본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면 당장 매국노같이 이야기하는자가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슬프게한다。좀 자신을 가져야한다。나라에는 國運이있다。18세기까지도 우리의 국운이 일본보다 좋았다。19세기에 역전되었다。이것은 사실 1세기동안에 일어난 일에 불과하다。이런 넓은 시야에서 우리는 우리 문화에 대하여 자신을 가져야 하고 신념을 가져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젊은이에게 기대를 걸어야 한다。그들의 창조력에 기대를 걸어야한다。나이를 먹으면 권위의식에사로잡히게 되어 있어、나 자신도 그런위인이 아닌가고 몇번 반성도 해보지만、일제때의 학창생활을 되 돌이켜보면 그렇게 부끄러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닌 항상 저항하고 반항하고 살았다는 기억이 난다。

그런데 요즈음은 어떤가。너무 약삭빠른 것 같다。

우직스럽고 우둔함이없어 보인다。도시 생활을 청산하고 농촌에숨어 큰꿈을 달래는 그런 젊은이들을 찾기어렵다。

말하자면 고향이 없는것이다。또나 개나 다 도회지에 몰리어 어떻게하면 아파트를 살까하는 것이 당면의꿈이다。일제 36년 우리는 가난하였지만 우리에게는 타도해야 할 절대자가 있었다。이런만큼 기개도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청년들이 보헤미언이 되어서 내일의 귀착 할두에만 관심이 있는것 같다。

요즈음은 독서의 계절이다。값이있는 고전의 공부를 외면하고 야파한 교과서적지식에 종시하고있는 느낌이다。자기의 장래、우리나라의 장래、인류의 장래에 자신을 가지게되면 우리는 고전을찾을 것이다。그렇지않을경우 찰라적인것에 매혹되고 자기의 나아갈길도 약삭바르지 않을수없다。이런 이들에게 일제강점기의 우울했던 과거를 감정이입시키는데있어 보다 실증성을 제시해줄 수 있는 저변적인것 부터 시작해야할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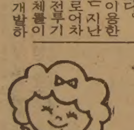
美 宇宙武器배치 可能

國防次官 의회證言

【워싱턴=UPI聯】미국은 인공위성요격위성을 비롯한 소련의 우수한 우주병기에 대처하기위해 어쩔수없이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규정한 현행 국제협정의 준수방침을버리고 미국의 우주무기를 우주공간에 배치해야할지 모른다고 미관리들이 20일 말했다。

리처드·델로어 국방차관은 상원외교위증언에서 미국의 우주군사정책은 우주무기의 배치와 이용을 금지하고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추구한는국제협약들을고수하고 있으나 소련이 우주개발에 사용하는 예산이 놀라울정도로 늘어난것을 감안할때 우주공간에서의 미국의 이익을 수호할 준비태세를 갖추지않고 방관하는것은 경솔한 짓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지상발사미사일을 이용한 미국의 요격인공위성은 지난 75년 폐기되었는데 델로어차관은 미국이현재 F15전투기에서 발사된 소형유도체를이용하는 새로운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주택
1. 마캄 & 힌치—4 Br.Rm. 방갈로. 잘 꾸며진 지하실. 싸우나. Fire Place 가격: 12만4천9백불
2. 세퍼드 & 빅토리아 파. 4 Br.Rm. 2층쎄미. 교통좋고 학교 가까움. 처음 사시는 분에겐 최적. 가격: 10만5천불.
3. 에그링톤&빅토리아파. 3Br.Rm. 콘도미니움. 수영장. 테니스 코트. 시내 가까이 좋은 주위환경. 학교 쇼핑센타 가까움. By Builter — 케디락 페어뷰에서 지었음. 가격: 6만2천9백불
4. 돈밀스 & 로렌스. 3+1 Br.Rm. 방갈로. 고급주택가. 학교. 쇼핑가까움. 10¼% 몰게지. 좋은 환경. 잘 꾸며진 지하실. 가격: 13만9천9백불
5. 블루아 & The East Mall. 4 Br.Rm. 방갈로. 넓은땅. 100×160. 교통편리. Fire Place. 가격: 17만5천
★드라이크리닝
1. 주매상: 2천6백. 렌트: 월 $1,000 3년. 순수입: 월5천 가격: 9만불
2. 주매상: 1천5백. 렌트: 월 $1,600 5년+5년 가격: 7만불
3. 주매상: $1,100 렌트: 월 $1,100 5년+5년 가격: 4만불

★도넛츠숍
1. 주매상: 5천5백. 렌트: 2천7백. 1년. 10년옵션. 13만불다운. 가격: 19만9천
2. 주6일(일요일 닫음) 하루 12시간만 하는 도넛츠숍. 연순수입: 5만불 가격: 12만5천
★Hunts 베이커리
쇼핑센터내에 주매상: 4천5백. 3만불 다운. 가격: 13만5천
★쇼핑몰내에 Fish & Chips
주매상: 약8천. 렌트: $2,291.66 4년. 15만불다운. 가격: 29만불
★버라이어티 스토아
주매상: 4천5백. 5천5백. 6천5백. 1만4천. 1만6천.
★가게딸린 건물
주매상: 3천. 5천. 6천. 7천. 1만천.
※그외의 여러 곳의 땅과 투자용 건물에 관해 문의하세요.

황용현
286-1548(R)

이헌영
686-0207(R)

강정숙
244-8918(R)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TEL(416)449-8644~5(B) · 286-1548(R) M3B 1Z3

액자집의 전당

● 가격을 비교하여 보십시오!　NEW

⊙METAL FRAME 30% off
⊙CUSTOM framing 35% off
⊙GLASS & MAT BOARDS 30% off

※지금현재 수천종류가 진열되어 있는 액자에 대해서는 1개를 사시면 1개는 무료로 드리고 있읍니다.

저희 액자회사에서는 이번에 새로이 동양화부를 설치하여 표구 및 한국액자를 취급하게 되었읍니다.
그동안 불편한점이 많았던 배접과 표구 이제는 많은 종류의 천이 도착 하였아오니 일차 왕림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조혜숙 조성호 배.

PICTURE FRAME WAREHOUSES
32A REXDALE BLVD. (at Islinton Ave.) ☎: 746-2120

자리굳혀 가는「美國속의 한국인」 한국일보 특집판

教育 때문에 移民 왔는데「基盤」잡고보면「남의 자식」

低學年일수록 適應빠르다

미국은 교육의 지상낙원인가。60년대후반 미국으로 대거 이주해간 동포들의 미국이민이유중 상당부분이『자녀들에게 더나은 교육기회를 제공해주기위해서』였다。많은 이주동포들의 염원처럼 미국은 과연 자녀교육의 理想鄕일까。「그렇다」고 긍정적인 대답이 나오기에는 너무나 많은 부정적인 측면이 재미동포사회에 부각되고있다。前回「미국속의 한인교회」편에서 잠깐 언급을했듯이 많은 미주동포들이 그들의이민동기가 美시민권을 획득한 딸혹은 형제자매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다。즉1965년 西歐우럽인에게 유리했던 국가별 이민쿼터제가 폐지되고 소위 직계가족및 전문적인 기술이민의 문호가 열리자 속된말로「치마폭에 묻혀」미국땅을밟게되었다。그러나 이들이 그렇게도갈망했고 동경했던 세계최대·최고의상아탑 하버드、예일、프린스턴、MIT등 아이비·리그(Ivy League, 東部명문사립대학)에 자식들을 보내 공부시키겠다던꿈이 한낱 이루지못할 장미빛환상에 불과했다는것을 이내 깨닫게된다。

한국에서 그렇게 담장너머 이웃처럼 친근감있고 쉽게 불러왔던 이들 명문대학이 결코 부엌에서 강아지부르듯 지척의 거리가 아님을깨달은 동포들은 실망할수밖에。

미국의 교육제도는 한국과 흡사하게 12학년까지는 고등학교교육과정으로 의무교육이다。이기간동안은 사립학교를 제외하고는 무료기간이며 여기에다 시티 칼리지등 2년제 한국식의 지역초급대학까지는 실비(학생회비등)를내고 공짜로 공부를할수있고 2년간의성적을가지고 상급종합대학 3학년으로 편입이 가능하다。

미국의 대학은 대학원중심으로 운영되고있어 한국과는 달리 웬만한 종합대학의경우 학부학생수가 대학원 학생수보다 훨씬 적다。

조기교육도 맞벌이하는 부부의경우생후만2년반만되면 아이들을 탁아소(Nursery)에 맡겨 유아교육을 만5세까지 시킬수 있다。

만5세가 되면 국민학교입학전에 공동생활을배우는 우리나라의 유치원에 해당하는 프리·스쿨(Pre-school)에 입학、약1년간의 적응기간을 거친후 만6세가 되면 국민학교에 정식 입학한다。

60년대 미국이 베트남전쟁의 수렁에 막대한 國富를 쏟아붓은후부터 중심을잃은 경제상태는 70년대를강타한 오일쇼크로 걷잡을수없는 혼란상을 초래、이상주의자 카터행정부를 단명시키고 정부적자의 감소(Less Government Deficit)와 인플레감소(Less Inflation)의 기치를 높고 무지막지할 정도로 감세정책과 놀고먹는 자에겐 가혹할이만큼 대담한 각종복지금을 대폭삭감해서 허위적거리는 경제를 바로잡겠다는 레이건을 맞았고 그의신념인 레거노믹스를 통치이념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한국에서와같이 私學들은 연방보조의 삭감내지는 단절로 수업료를 올리지않을수없었고 심지어 공립학교에서까지 등록비를 올려야했다。

이런 전반적인 미국의 상황변화는 동포가계에도 큰영향을 주었다。

父母따로 子女따로
한집안서 말안통해…밖으로만

우리대학졸업식광경을본어느외국인이 한국만큼 부모들의 교육열이높은곳을 보지못했다고 탄복하는 얘기를 들은적이있다。

코메리칸의 경우는 더욱예외가 아니다。부부가 맞벌이를 해야만하는 미국사회는맞벌이의 중요원인중하나가 자식을 좀더 잘가르치기위해서다。그렇게 힘든일을해서 얻는수입으로 자식들을 더나은 환경에서 공부하도록 비싼등록금을내고도 사립학교에 보내는경우가 허다하다。

문제는 이런부모들의 마음을 알아주지않고 미국사회의 퇴폐적인것에몰입돼 소위 문제아가 되는경우。

시카고서 이민8년째를 맞고있다는丁重奎씨(49·가명)의 경우는 미국이 교육의 理想鄕이아님을 설명하는 한대표적인예다。丁씨는한국에서 교직에 종사하다 동서초청으로 8년전 시카고로 왔다。

별가진것도없이 빈손이민으로온 丁씨는 주유소 펌프맨으로 고달픈 이민생활을시작했다。당시 장남은 13살로 중학2년생、차남은 국민학교 6년생인 11살때 미국땅에왔다。아빠가 선생님이라 그런지 한국에선 두아들이 학교에서 1등을 빼겨본적이 없어 丁씨부부에게 큰희망을주는 착실한 아이들이었다。

미국에 와서도 1、2년은 그런대로 우수한 한국인이라는 소리를 들었단다。

조금이라도 빨리 일어서보리라 丁씨는 丁씨대로 하루 10시간이상을、丁씨부인역시 봉제공장에서 미싱을 돌리며 이른아침에 집을 나서 깊은밤이돼야 돌아오곤 했다。

丁씨부부에게「한탄스런이민생활」은 우연하게 시작되었다。11학년에 재학중인 장남을찾아 어느날 미국경찰이 집에들이닥쳤다。

무슨영문인가를 물었더니 그렇게도 착하고 공부잘하던 장남이 삐뚤어진 몇친구를잘못사귀어 이들이 작당、미국인 노파가사는 집을 털었다는것。丁씨에겐 청천벽력이었다。학교에도알아보니 우수한줄 알았던 아들이 학교도 잘나오지않는 불량아로 기록돼 있더란다。

교육자출신인 丁씨는 곰곰이 탈선아들의 탈선원인을생각해본다。조금더 빨리 일어서보려고 공휴일에도 일을하고 아이들은 한상잠자고있을때 퇴근하는 생활의 연속이었다。아이들에겐 한국말이 잊혀지고 영어가 몸에밴코메리칸이되자 영어를못하는 丁씨부부와는 점점 대화가멀어져갔다는것。

『자식두녀석 좋은 대학보내겠다고 밤잠도 설치고 이렇게 뼈빠지게 일한댓가가 이 모양이라면 당장 봇짐이라도 싸고 한국으로 달려가고싶습니다』『미국땅에와서 남은것(?)이라곤 착하디착한 자식하나 잃은 셈이지요』울먹이는 丁씨의 절규는 상당수의 동포가정들이 안고있는 고민이기도하다。

한국사회와는 판이하게 다른 문화충격으로부터 이들청소년들을 완화시켜 보호해주는 충격흡수장치가 동포사회엔 드물다。

동포사회가 많은교회를 갖고있지만 이들 탈선하기쉬운 코메리칸2세를 흡수、교화할수있는 제도적장치 즉 이들을 교회로 불러들일만한 영어예배를 이끌 목회자가 없다는 점이다。주일이면 부모와같이 한국인교회를 찾지만 목사의 설교가 귀에들어오지않는다。

당장 싫증을 느끼고만다。차라리 잘붙여주지않는 백인친구들보다는 잘어울려지는 흑인등 소수민족출신 같은또래들과 어울린다。이를 불량

맞벌이 熱中하는 사이 脫線일쑤
일부지역선「한국학교」설립추진

친구들과어울려 지금까지몰랐던 마리화나환각제등 마약의 세계도 넘본다。

말이안통하는 부모는 꼭무슨 이웃집 마당쇠 보듯한다。부모의 영어문맹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를테면 학교에서 자주하는 師親會(PTA) 모임을 알리는 고지서는 숙제 집에 가져오지도 않는다。『자식들이 영어 못하는 아비·어미를 아주 경하게보는것같다』고 한동포는 한숨짓는다。

남보다 조금더 빨리 자립해보겠다고 밤낮을 뛰다보면 자식들은 어느새「돌아오지못할江」을 건너버린지오래。

특히 동포들이 밀집해사는 로스앤젤레스、뉴욕、시카고등엔 어느새 동포청소년 갱단이 생겨나고 각종 조직범죄가 이들몇몇의 탈선젊은이들에게서주도되고있는실정。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동포 姜丙賢씨(39·가명)는 색다른 경험을 얘기한다。

하루는 국민학교3학년짜리 아들녀석이 학교갔다오더니 엄마에게『왜 우리는 아빠가 하나밖에 없느냐』고 대들듯이 물더라는것。

꼬마의 설명인즉 자기를 라스메이트 미국아이는 지난주말에는 지금은 엄마하고 이혼해서 떨어져사는 친부와 함께 시월드(해양공원)에 가서 돌고래쇼를보았고 이번주말엔 현재엄마와 살고있는 의붓아버지와 스키타러 가기로했다는 자랑을했다는 姜씨의 아들녀석에겐 아버지가둘인 이미국친구가부러울수밖에。

이처럼 생활양식·의식패턴이 우리와는 전혀 다른 미국인의 그것이 미국속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2세코메리칸엔 이것이 무비판적으로 당연한것으로 인식돼가고있다。

2세들에게 미국문화와 한국관습과의 차이를 설명해줄 기회나 기구가 없다。

이처럼 미국속으로 우리것을 깡그리 잊은채 빨려들어가고있는 2세들에게 자랑스런 한국인의 후예임을 일깨우려는 움직임이 동포들이밀집된 로스앤젤레스·뉴욕·시카고등 대도시를중심으로 부산하다。즉 2세들을 위한「한국학교」건립운동이 대표적인예다。

로스앤젤레스의 경우、정규학교가 쉬는 토·일요일 양일간을 이용、하루 4시간씩 한글교육·우리풍습을 가르치고있다。

南加州한국학교건립위원회가 비영리법인체(None-Profit Organization)로인정을받아 많은 동포들로부터 모금을통한 자체건물과 교육부대시설을 갖춘 상설정규학교로 발돋움하기위해 열심히 뛰고있다。

현재 본국정부로부터도 상당량의 자금지원을받아 기금조성에 피치를 올리고 있는 남가주한국학교건축위원회이사장 조영근씨는 장차 만들어지게될 한국학교의 성격을 다음과같이 설명한다。

『정규학교가 완성되고나면 수익자부담원칙에따라 공납금을받는 사립학교의 성격을 띠게될것』이란다。

『한국인의 우수한머리를 바탕으로 우수한 상급학교로의 진학률이 외국인들에게도 큰관심을 끌게되리라고 봅니다』명문사학으로 키우겠다는 결의가 대단하다。

동포2세에대한 일부소수의 부정적인 측면과는 다르게 미주 곳곳엔 자랑스런 2세의 얘기가 많다。

이를테면 2만여동포가 모여살고있는 아틀랜타의 경우 지난학기에 미국학생을 제치고 학교전체수석한 동포자녀수가 4~5명이나돼「우수한 한국인」으로의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했다고 한국일보아틀랜타지국장김학규씨는전한다。『2~3년전만해도 한학교의전체수석이란동포사회의 대단한 뉴스거리였지요。하나 지금은 되려 전체수석을 하지않는게 뉴스가 될형편입니다』고 金지국장의 조금은과장스러운 얘기가 하나도 거북스럽지가 않다。실제로 기자가 찾아본 소위 東部의 명문 아이비·리그를 대낫갈이 밝히고있는 불야성을이룬 도서관휴게실에는 낯익은 한국말로 대화하고있는 자랑스런 코메리칸2세들의 모습이 군데군데 눈에 띄었다。

『자식들의 교육문제나 미국서의 숨가쁘지않은 정착을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아이들이 어릴때 오는게 나을것 같아요。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갈 나이까지는 어느정도 생활의 안정을 다져놓는게 교육상 유리할것 같아요』로스앤젤레스에서 보험업을 하고있는 徐余相씨(38·에퀴타블보험 LA지역매니저)의 말이다。

徐씨의 설명에따르면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온 2세일경우 미국에서의 적응기간이 한국에서 교육기간에 반비례한다는 설명이다。

그의 설명인즉 국민학교때 이민오는경우와 중고등학생으로 오는경우는 언어문제등을 포함、저학년의 경우가 훨씬 적응이 빠르다는것。

그리고 학교에 나가는 아이들을둔채 부부가 맞벌이에 나서 결국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들은 자식대로 가정의 균형이깨져 결국 자식교육을 위해 열심히 뛰어 어느정도 경제적인 안정이되고나면 이미 자식은 내자식이 아닌 경우가 허다하다는것。

많은동포들은 한결같이 경험적인 얘기로『이민을 결심한 사람들은 미국고용시장에서 당장 고용될수있고 보수도 괜찮은전문직종을 선택해야만 자식도 지키고 가정도 지킬수 있을것』이라고 말하고있다。

【盧繕煥기자】

◇자식들을 名門대학에 보내려는 코메리칸들의 의지는 대단하다。그러나 이내 이들 대학이 부엌에서 강아지 부르듯 지척의 거리가 아님을 깨닫는다。사진은 예일대학。

◇자식을 잘키워보겠다는 코메리칸들은 토요일,일요일에도 쉬지않고 달러를 찾아 집을나선다。사진은 주말을 이용해서 성시를이루는 로스앤젤레스의 스와프·미트(Swap Meet:간이시장) 광경。 【로스앤젤레스支社=柳根哲기자찍음】

맛 사 지

DIXIE HEALTH STUDIO

Whirlpool * Sauna
Gym * Massage
Luxurious Surroundings
OPEN 10 AM-1 AM
5170 Dixie Rd.
(near airport)
MISSISSAUGA
624-8822

CENTRAL CANADA COLLEGE

특수영어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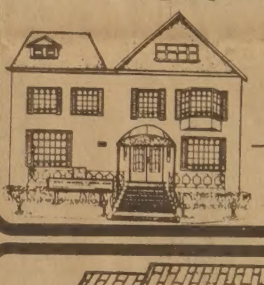
◎ 고등학교 11학년~13학년을 위한 영어교육을 위한 신청
◎ 학기는 매년 1월, 6월, 8월에 시작함.
◎ 컴퓨터·싸이언스및 제2외국어로서 영어교육을 위한 훌륭한 선생 보유
◎ 학생들의 대학교입학을 위한 보조 역활
◎ 외국학생들의 비자신청 역활

◎ 자세한 사항은
444-1136
MR. WAN 또는 윌리암

사무실시간(월~금)오전9시~오후5시
60 Park Lane Circle (베이뷰×로렌스)
☎: 444-1136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중국인경영으로 최선을 다해 봉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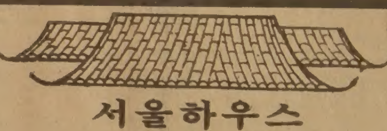


721 Bloor St. W.
크리스티 써브웨이)
530-1222 Mr. 왕
536-6250 호세환

Richard Y. K Wong Insurance Broker

보 험
⊙자동차 보험
⊙주택 보험
⊙상업(가게·레스토랑등)전문

312 DUNDAS ST. W. TOR.
(B)977-4057 (H)461-7769
Registered Insurance Broker 리챠드·왕



서울하우스
고향의 맛!
한식,. 중국식요리 각종음식준비
짬뽕·냉면
짜장면·잡탕밥 전문
615 BLOOR ST. W. ※일요일은 휴업
☎: 532-0602 김 신우

Pendex Business Machines Ltd.
1436 QUEEN ST. W. (& LANSDOWNE) TORONTO
Tel. 532-0111 Res. 259-5820
SPECIAL
6주년 기념
SANYO
$595.00

분납 가능
교포 경영
김 성 수

大韓航空만이 每週 23回 韓國으로 出発합니다.

뉴욕↔서울 直行便
週4回 運航

매주 화·목·금·일요일 JFK공항 출발

로스앤젤리스에서는 서울로 매일 출발하며,
週4回(月·水·金·土)는 NONSTOP便을 운항합니다.

정성껏 봉사하는 우리의 날개—
KAL 大韓航空

편명 출발일	KE011 月水金土	KE001 火木土日	KE015 火木日	KE050 月水金日	KE007 火木金日
뉴욕					23:55
로스앤젤리스	14:00	10:00	23:20		
앵커리지			▽		02:15 03:40
호노루루		12:20 13:20		02:20	
동경		16:10 17:20			
서울	19:00	19:30	06:40	06:50	06:30
도착일	火木土日	水金日月	木土火	火木土月	木土日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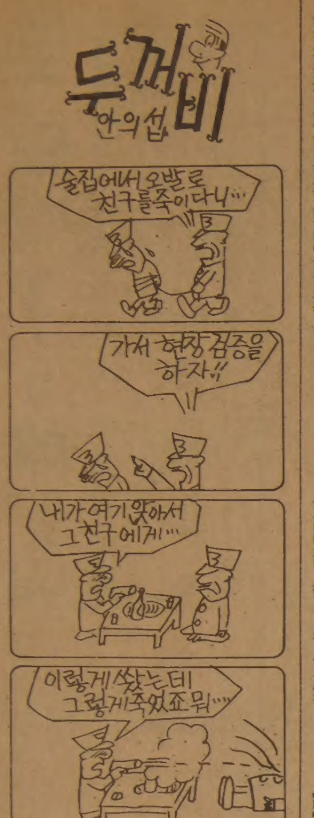
편명 출발일	KE012 月水金土	KE002 月水金土	KE016 火木日	KE060 火木土日	KE008 火木金日
서울	16:00	18:00	21:30	20:30	18:40
동경		20:00 21:30			
호노루루		09:40 12:10		09:50	
앵커리지					08:10 10:40
로스앤젤리스	11:00	20:20	16:30		
뉴욕					22:20
도착일	月水金土	月水金土	火木日	火木土日	火木金日

▽앵커리지 급유 경유
*모든 시간은 현지 시간임. *본 시간표는 정부인가 조건이며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읍니다.

★ 자세한 것은 대한항공이나 각 여행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항공 ☎ (416) 862-8250
390 BAY ST. SUITE 720,
TORONTO, M5H2Y2

●서울여행사 535-6004
●제일여행사 535-2377
●신세계여행사 536-2155
●한국여행사 531-4607



결혼예물 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목거리,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때아닌「殺人말벌」소탕戰

한家族중 1명숨지고 2명다쳐入院
防熱服착용한 동네사람 百여명動員

三千浦서

【三千浦】일가족3명을 쏘아 1명을 숨지게하고 2명은 입원케한 살인장수말벌떼가 1백여 동네사람들이 방열복을 입고 앰뷸런스, 산소호흡기, 의사까지동원한가운데 2시간동안의 야간소탕작전끝에 겨우 소탕됐다。

우려없는 말벌 소탕작전을 벌인곳은 경남三千浦市 松圃洞 角山일대 밤나무 숲으로 밤나무밭 소유주 李仁九씨(63·三千浦市松圃洞63)가 벌에 쏘여 죽은 것이 소동의 시초다。

李씨는 지난15일하오 밤을 따러 갔던 며느리 崔然珠씨(33)가 말벌에 얼굴을쏘여 중상을입은데격분, 벌집을없애려 작업을하다 오른쪽귀를 쏘여 숨졌다。그뒤 큰아들文相씨(35)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뒤 또 벌집을 없애려 밤나무숲에올라갔다가 길이가 5㎝나되는 말벌에쏘여입원하는소동이 일어났다。

이후 이일대35㏊의 밤나무단지에는 주민들이 밤을 따러갈수가 없어 18가구 소유주들이 프리미엄까지붙여 인부를 쏘려했으나 아무도 나서지않자 24일 저녁8시40분부터 시청, 소방서, 병원의 협조를 얻어 말벌소탕작전을 벌이게됐고 수천마리의 벌과 유충이든 길이 80㎝, 직경60㎝의 벌집을 태우는데 성공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장수말벌은 유독 李씨 일가만 골라 침을 쏘았는데 며느리崔씨에따르면 지난11일께 숨진 李씨가 인근 선친산소에 성묘를하고 묘소옆에있는 벌통을 소각한후 15일상오10시崔씨가 인부 3명과 함께 밤을 딸때 유독 崔씨만 벌에 쏘였으며 숨진 李씨도 인부와함께 벌통을 제거하다가 李씨만 쏘여죽었고 큰아들 文相씨도 안내자를 뒤따라가다가 혼자만 벌에 쏘였다는것。

또 지난 17일 李씨의 장례를 치른후 가족들이 제를 모시기 위해 사고지점에서 3㎞나 떨어진 栗忠寺에 위패를 모시는 순간,어디선가 벌한마리가 법당 안으로 날아와 李씨 사진옆에는 꽃이 있었는데 앉지않고 사진액자 위에 한참동안 앉았다가 날아가 버려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기이하다는 것이다。

崔씨는 벌에쏘이는순간 전기에 감전된것처럼 짜릿한아픔과함께 3분만에 가슴이답답하고 호흡장애가 나타나하반신부터 마비되는 증세를느꼈다고 말했다。

金창호교수(52·진주 경상대 식물보호학과)는 이벌이 땅속에 집을짓고 집단생활을 하고있고 독성인 히스타민이 강하고 분비액이 많아 쏘일경우 치명상을 입으며 혈관에 쏘이거나 독이 침투하면 즉사하는 경우까지 있다고말했다。【鄭】

秋夕앞둔 9월 마지막週末
태풍빠지고 快晴 가을날씨

9월 마지막 일요일인 26일 우리나라의날씨는 19호태풍 켄(KEN)의 영향을벗어나 쾌청한 가을날씨를 보이겠다고 중앙기상대가 25일 예보했다。

기상대는 일본열도와 울릉도사이의 동해를따라 북상중인 태풍 (중심기압9백70밀리바)이 25일 정오현재 울릉도 남동2백㎞해상에서 매시35㎞의 속도로 북상중에있으며 25일 밤사이 그 세력이 약화되면서 일본 북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5일 정오현재 태풍경보가 발효중인 울릉도 독도지역에는 강한 비바람이불고 동해상에는 4~5m의 높은 파도가 일고있으나 이날아침까지 비를뿌리던 浦項등 영동해안지방은 하오들면서 비가 그치고있어 태풍피해는 별로 없을것같다。

기상대는 26일부터 한랭전선을 동반한 북서쪽의 기압골이 다가와 전국이 맑은 날씨에 기온은 다소 내려갈것이라고 내다봤다。

26일 기온은 최저 10~18도 최고 27도。

"高位層통해 좌석버스許可…"
4천여만원 가로채

【大邱】경북도경은 20일 安東市龍上洞1201의1 金命學씨(58)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서울西大門區義州路200 金永心씨(50·여)를 같은혐의로 수배했다。

이들은 지난 4월21일 대구시南區大明1洞792의3 趙君基(39)에게 고위 인사를 통해 대구시장에게 부탁해서 버스허가를 얻어주겠다고 속여 2백만원을 받는등 81년 5월10일부터 지난 4월달까지 25회에걸쳐 4천60만원을 받아 가로챈혐의를받고 있다。【鄭】

걸핏하면 男子때려
食肉店 여주인立件

【店村】식육점을 경영하면서 걸핏하면 동네남자들을두들겨팬 여장부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북聞慶경찰서는 25일 李王粉씨(32·聞慶郡 籠岩面 籠岩里130)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의하면 李씨는 지난13일 자기집수리를맡은 같은동네 白호일씨(38)가 아들을 나무랐다고 나무막대기로 白씨의얼굴을때려 상처를입혔고, 지난8월22일에는 같은마을 유동우씨(36) 등 2명이 막걸리1되를마시고 5백원을 내주며 거스름돈을요구하자 「그는 거스름 돈이냐」며 柳씨에게 폭행을가했으며 또 지난7월28일에도 동네 李재민씨(38)를 만나자「외상술값 4천1백원도 안갚고 우리집에 오지도않기냐」며 주먹으로 李씨의얼굴을 마구때렸다는 것이다。李씨는 이밖에도 지난3개월간 13명의 남자를 때린혐의를받고있다。【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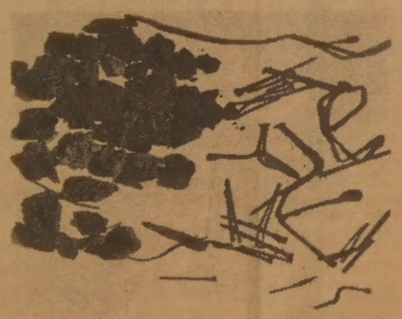
住公간부들 브로커 돈받고
庶民用아파트 멋대로 處分

【釜山】釜山지검 공안부는 25일 대한주택공사 釜山華明소장및 직원들과 부동산브로커들이 짜고 서민용 아파트를 부정으로빼내 거액의프리미엄을받고 팔아온 사실을 적발,주공釜山華明관리소장 李永浩씨(42)와 부동산브로커 池昌源씨(31)華明洞로얄부동산대표柳東植씨(41)華明洞 마을금고이사장 鄭炫宋씨(35) 등 4명을 주택건설촉진법위반혐의등으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주공釜山華明관리소장 李씨는 지난2월 브로커인 鄭씨와 池씨로부터 사례금 4백10만원을받고「華明洞주공아파트단지내의 미분양된 아파트중 가장 위치와 구조가좋은 105동의30세대분을 관계서류를 조작, 분양해주어 세대당30~50만원씩의 프리미엄을 받고 서민들에게 전매케했다는것。

문제가된 이 아파트는 주택공사가 서민들의 주택난해결을위해 국민주택 건설기금으로 건설, 서민들에게 공급하는 소형아파트단지인 주공釜山華明아파트의 13평형이며 융자및 할부금을 제하면 현금 2백10만원으로 분양받아 입주할수있는 좋은조건이기 때문에 투기대상이 돼왔다。【鄭】

쏟아져나온「虐殺유물」
堤岩里 희생現場 발굴서



◇堤岩교회 학살현장의 생생한 증거품들。숯조각 철사못 녹은유리조각 단추 석유램프걸이로 보이는 철사줄등이 유골에 섞여나왔다。

【華城=李忠雨기자】일제의 잔악한 만행이 63년만에야 세상에 드러났다。문공부 문화재관리국조사단은 25일상오11시께 경기도 華城郡鄕南面桃李里에서 9군데에 흩어진채 발굴된 순국지사들의유골을비롯, 숯조각, 철사못, 사기단추, 동전, 맥주병조각, 사기그릇조각등 堤岩里학살현장의 증거품들을 공개했다。

유골들은 사방공사 姜씨를 채종하는 평지로 조성하기위해 불도저로 깎아놓은 20㎝~40㎝ 깊이의 임업시험장 포지에서 발견됐다。조금만 늦었더라도 뼈한조각 못찾을뻔 했다고 조사단장 金東賢씨는 밝혔다。

형태를 완전히갖춘 유골은 단1구뿐이며 두개골 1구와 유골편들이 한결같이 재와 작은 숯조각에섞여서 출토돼 초가3간의堤岩里교회잿더미속에서 유해를함께 8개로나누어 묻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었다。

유골속에서 나온 유물가운데는 大正8년(1919년)에 발행된 1전짜리동전「기린」이라고 일본말로쓴 상표가 선명한 맥주병조각, 山口라는 加幸글자가 새겨진 사기그릇조각도 출토되었다。

순국지사들의 유골은 堤岩里교회뒷동산에 합장묘를 만들어 안장시키기로하며 오는29일하오2시 경기도주관으로 위령제를 거행키로했다。

호텔비밀린 英人 詐欺혐의로 구속

서울南大門경찰서는 25일 英國人 C·F·H·맨탄씨(45)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맨탄씨는지난3일 아들 데일·맨탄군(7)과 함께 서울中區小公洞롯데호텔 3200호실에 투숙, 그동안 숙박료 1백41만원, 음식값 83만원등 모두 2백39만원이 밀렸으나 지불을 계속 미뤄오다가 호텔측으로부터 경찰에 고발 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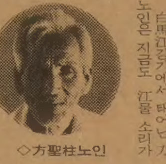
맨탄씨는 그동안 10여차례 한국을 방문했고 이번에는馬山수출자유지역내에 있는 공장을 인수하기위해 시장조사차 아들과 함께 내한했으나 경비가 떨어져 호텔숙식료를 내지 못했다는것。

歲月을 모르고 산다…

◇扶蘇山이 거꾸로 떠있는 白馬江물결위에서 최후의 뱃사공 方노인이 돛단배를 젓고있다。

白馬江 마지막 뱃사공 方聖柱노인
江邊서 태어나 江과 더불어 一生
모두가 변했어도「옛것 고집」여전

【白馬江구드레나루터=宋大洙기자】白馬江최후의 뱃사공 方聖柱노인(71·충남扶餘郡扶餘邑窺岩里)은 세월을 모르고 산다。하지만 추석같은 명절에 고향을 찾는 귀성객을 건네줄때면 또 한해가 지나가는것을 문득 느끼곤 한다。한창 젊은나이인 20세때 白馬江에서 노를 젓기시작한 方노인은 어느새 50여년의 기나긴 세월을 白馬江물결에 흘려 보냈다。그사이 유명한 白馬江의 돛단배가 모두 대형동력선으로 변했다。배만 변한게 아니라 세상도 많이 변했다。정치도 바뀌고 경제사회도 달라지더니 뒤이어 人心도 바뀌었고 이제는 大淸댐마저 생겨 白馬江도 옛날의 모습을 잃었다。그러나 方노인만은 고집스럽게 白馬江유일의 황포돛단배를 고집한다。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건 아닌데「옛날것」이 좋다고만 말한다。



◇方聖柱노인

白馬江강가에서 태어난 方노인은 지금도 江물 소리가 지척에 들리는 구드레나루터 근처의 오막살이에살고있다。농토라고는 땅 한뙈기도없는 그는 요즘도 고란사 나루터에 배를 띄워 도강 손님이나 유람객들을 위해 노를 저어주고 배삯을 받아 생계를 유지해오고있다。

대형 유람선이 쉴새없이드나드는 고란사 나루터에서속도빠른 동력선과의 충돌을피하려고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方노인의 돛단배는 白馬江의 미운오리 새끼다。

노를 잡은 늙은 손에 와닿는 물살의 촉감만으로도,눈을 감고도 배의 위치를 알수있을 만큼 江의 마음을 속속들이 읽을정도이다。

『신식배가 좋은게 아니야。白馬江에서는 이런 황포돛단배가 더좋을수도 있어』라고 方노인은 선박폐유로 얼룩진 강물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한번 이 구닥다리배를 타본 白馬江유람객중에는 한사코 동력선을 마다하고 이 돛단배를 찾는 손님들도 많다는 것이 方노인의 자랑인데, 이런 손님이올때마다 자신은 모시옷에 두건을 매고『멋을 부린다』며 웃는다。

이제 며칠후 강물 위로 한가위 달이 떠오르면『白馬江의 풍류를아는 손님 몇명만을 골라싣고 고란사나루터에서 구드레 나루터까지의 물길위에 배를 띄우겠다』는것이 方노인의 추석절 계획이다。

白馬江은 부소산을 휘감아 흐르는 구비침이 가파르고 물살이 빠르고 수량도 많아 백제는 이 江기슭을 천혜의요새로 삼았다。그러나 최근상류에 大淸댐이 건설된후부터 江은 그 도도한 위세를 잃게되었다。

方노인의 회상에따르면 大淸댐 건설 이전에는 수심이 어른키의 7~8길이 넘었고 물살도 빨랐으나 댐건설후로는 완전히 댐의 수문조작에 수량은 의존하게되어 연중 거의 대부분 수심은 두길을 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젊은시절에는 유복한 차림의 친일파인사들과 교성을지르는 遊女들의 선유를 위해 노를 저어준적도 많았지만,『이들의 위세와 교섭도 결국은 강물처럼 흘러 사라지고 말았다』고 늙은사공은 말했다。

한때는 유람객들이주는 배삯을 모아 고란사 나루터에 수상음식점을 차리기도 했지만 지난 79년의 태풍때 풍지박산이 되어『몇조각의 나무조각이 되어 강아래로 떠내려 가더라』고 方노인은말했다。

그러나 江에서태어나 江에서 늙은方노인은『江물과 배와 노가 있는 한 절망하지않는다』고 말하고『처음 배를 띄웠을 때도 무일푼이고 지금도 역시 무일푼』이라며쓸쓸하게 웃었다。

이 方노인과 대화를 나누는사이『그 유명한「白馬江달밤에…」노랫소리가 강어귀 여기저기서 들렸다。『불황의 탄식일랑 잊은듯 白馬江에는 추석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스토리

M16銃器 탈취사건
車치기 전과자 全庸瑄
犯人단정 全國수배

【仁川=金宗來·崔成基기자】M16총기탈취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25일 차치기전과3범 全庸瑄씨(22·무직·전과3범·경기安養市官陽洞75의31巢川연립주택2층5호)를 이사건의 범인으로단정, 전국에 공개사진수배했다。

경찰은 전날 하오 全씨집을 덮쳤으나 全씨가 3일째 집에 들어오지 않아 검거하지 못하고 水原과 서울의 연고지인 泰陵과 신촌등지에 형사대를 급파했다。

경찰이 全씨를 범인으로단정하는 이유는▲全씨가 고교재학중 친구에게 왼쪽빰을칼로 찔려 생긴 5㎝가량의 상처를 가리기위해 평소 반창고를 붙이고 다녔고▲범행차량 백미러에서 채취한지문이 全씨것과 비슷하며▲차량절

◇공개수배된全庸瑄씨

도 차치기수법의 전과자로水原 仁川 安養에 연고가있으며▲사건당일인 지난 22일낮12시께『당분간집에안들어온다』며 집을나가 돌아오지않고있고▲집을 나갈때 베이지색 남방을 입고있었을뿐만아니라 목격자들이본 인상착의가 거의 비슷하기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全씨는 姜모씨(21·경기 水原市 鍊武洞) 李모씨(21·경기 水原市)등 2명과함께 79년5월18일하오2시25분께 서울永登浦區新吉洞235의2 신남슈퍼마킷 앞길에서 金모씨(30·서울 永登浦區 新吉4洞)의 포니승용차를훔쳐 1주일후인 25일하오1시께 서울永登浦區望遠洞317의21앞길에서 길을가던 이동네 蘇모씨(31·여)의 핸드백을 날치기해 현금등 6만2천원어치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것을 비롯, 같은 수법으로 같은해6월25일까지 16차례에 걸쳐 차량5대와 3천6백여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쳤다는것。

全씨는 이해7월 서울西部경찰서에 검거돼 3년형을 선고받고 義政府교도소에서 복역중 지난 광복절특사로 풀려났는데 이때 복역중 운전기술을 배운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全씨가 그동안 무직의 상태였는데도 영도낚시점(주인 李相祚·58)에 들려 낚시대케이스를살때 10만원수표와 1달러짜리 미화6장을 갖고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이사건전에도 다른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보고수사를 계속하고있다。

全國돌며 처녀40여명 울려
대학원생 사칭 돈까지뺏아

【光州】전남光州경찰서는25일 대학원생을 사칭, 여대생과 공장여공, 회사직원등 40여명을 농락하고 2백50여만원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韓炳鎬씨(21·전과2범·서울東大門區龍頭洞49)를 특수절도및 사기등혐의로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韓씨는 지난2월15일 서울Y대학교 공학관에서 이학교 공과대학원에 재학중인 郭모씨(26)의학생증을 훔쳐 자기사진을 붙인뒤 이 대학원院友會 총무부장이란 명함까지 찍어가지고 다니면서 지난6월11일경南馬山K모직회사 여공 전모양(22)에게 공장을 퇴직하고 자기와함께 살자고꾀어 농락한후 전양의 퇴직금12만원을 가로챈것을 비롯,지난8월21일에는 전북J대학교 정문앞에서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이학교 4년 김모양(23)에게 접근,「신분증과 명함을보이고 인근여관으로 유인,김양이가지고있던 현금11만원을 사취하는등서울·부산·大邱·馬山·光州·濟州등 전국을 돌면서 지금까지 40여명의 처녀를농락하고 2백50여만원상당의 금품을 가로채거나 훔쳤다는 것이다。【鄭】

「평범한 秀才」
올해 司試 수석합격 林俊浩군
난생 첫 榮光…친구와 술즐기는 好男兒

올해 사법시험 수석합격자 林俊浩군(25·사진·서울大 법대대학원2년)은「수석」이란 난생처음이다。

국민학교때부터『공부 잘한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졸업·입학을 통틀어 수석은 못해봤고 해보려고 벼른적도없다。

수석을 밥먹듯 하는 천재는 아니고 IQ 1백35에 대학교성적 B정도의 흔히 말하는「평범한 수재」일뿐이다。

대학입시에 낙방, 재수도 해보았다。이번 합격도 지난해 고배끝에

『될것같기도 하고 떨어질것같기도 했는데』란 본인의 표현처럼 의외로 수석을 한 모양같다。

林군은 대학입시를 위해 첫 서울나들이를 한, 아직도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의 억양이 고스란히 남아있는「순촌놈」이다。고향은 전남潭陽郡 昌平面 三川里。

이런저런 이유로해서 林군에게서는 지금까지의 각종 수석들에게서 가끔 엿보이는 세련된 가식이느껴지지 않는다。

여느 수석들처럼 술을「공부했는데도 붙었다」거나「학교수업을 충실히 했다」는 상투적인 소감대신『고시공부한답시고 남들처럼 고시촌에도 처박혀봤고 떨어지면 어떡하나하고 고민도 많이했다』고소박하게 말한다。

딱 한가지 다른 수석들과 비슷한점을 억지로 찾는다면 편모슬하에서 그것도 출가한 세째누나집에 얹혀「조금」어렵게 공부했다는 것이다。

어쩌면 이점이 대학입학때부터꿈꾸던 순수법학자의 길을 포기하고 벼슬길에 나서기로 작심하게 했는지도 모른다。

실제로 林군은 시험준비중 불현듯이 가슴아프게한것은『법학을팽개치고 벼슬길을 택하게된것』이었다면서 어머니 崔致玉씨(57)를쳐다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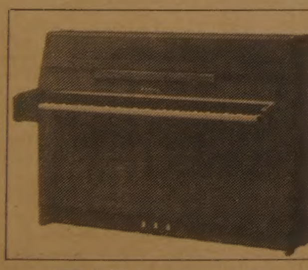
그러면서도 어머니의마음을 다칠세라『우리 어머니의꿈은 신통히도 들어맞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어린소견간지만 이제 어머니를 모실수있게된것이 가장 기쁩니다』

역시 그답게 또한「사법정의 실현입네」「사회정의구현입네」하는 거창한 얘기가 아니었다。정말 林군은 또 홀어머니슬하에서 공부만 파온「외곬」이 아니라 친구들과 어울려 술마시기도 즐겨하는, 전혀 편협한 분위기가 느껴지지않는 소탈한 호남아였다。【崔奎植기자】

5주년 개업기념 스페샬 ★기 간 : 9월1일~9월30일

10~30% OFF


CX-4 Walnut(open pore)
CX-4 Ebony Polish
$2,995(Re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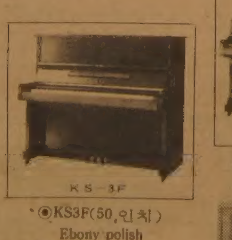
DX300 $3,495-RE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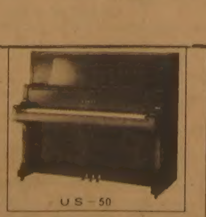
DX80 〈Reg〉 $1,5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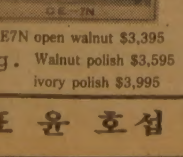
DX90 $1,895-REG

DX100 $2,395-REG
DX200 $2,995-REG

⊙새로 도입된 DX전자올갠 전 모델(10% - 15% off)
⊙각종 신형 Model의 upright 및 그랜드 피아노(10% - 15%)
⊙기타 USED 피아노및 전자올갠(30% 할인)


⊙KS3F(50인치)
Ebony polish
Reg. $4,995
⊙UST7(46 인치)
Reg. Ebony Satin $3,995
Walnut Satin $4,095


⊙US 50 (52 인치)
Reg. $5,995


⊙CE7N open walnut $3,395
Reg. Walnut polish $3,595
ivory polish $3,995

⊙KL32WG(52 인치)
Reg. $6,495
⊙KL 502(49 inches)
Walnut Satin
Reg. $4,995
32 WD.

Markham Place
2900 Steeles Ave. E.
Thornhill
☎ : 881-8211

Hillcrest Mall
9350 Yonge St.
Richmond Hill
☎ : 883-9407

가와이 KEYBOARD CENTRE (모짜르트 MUSIC CENTRE) 대표 윤호섭

한국、蘇에 3-0敗

7·8위戰 밀려나

세계여자배구 페루、美꺾고 中共과 爭覇

【트루히요(페루)=聯】한국은 25일상오(미하한국시간) 이곳에서 벌어진 제9회 세계여자배구선수권대회 5~8위전 첫경기서 蘇聯에 3-0으로패했다. 한국은 이날 쿠바에 3-2로 패배한 브라질과 26일 7·8위 결정전을 갖는다.

한편 리마에서 열린 준결승전에서 홈팀 페루는 美國을 3-0으로 완파, 26일中共과 패권을 겨루게 되었다.

페루는 美國에 3-0으로완승했으며, 中共도 日本에 3-0으로 승리했다. 이로써 결승전은 페루-中共, 3·4위전은 美國-日本으로 짜여졌다.

◇전 적

▲준결승전

페루 3 (15-10, 15-12, 15-12) 0 미국

중공 3 (15-6, 15-7, 15-8) 0 일본

▲5~8위전

소련 3 (15-10, 15-9, 15-13) 0 한국

533-2361

선생님, 우리선생님

메아리

金昌悅 〈編輯委員〉

지난 78년 7월1일부터 스웨덴은 어린이에 대한 體罰을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매질뿐 아니라 어린이에게 창피를 주는 일도 못하게 했다. 학교 교사뿐 아니라, 어버이도 마찬가지다. 학교와 가정, 어린이의 모든 생활국면에서 육체적·심리적인 모든 가해행위를 금지한 것이다.

어린이 體罰에 관하여 스웨덴과 대조적인 나라는 영국이다. 영국학교에서의 體罰은 하나의 전통으로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어린이가 보는 앞에서의 體罰을 인정않거나, 교장의 위임을 받은 노련한 교사, 여학생에 대해서는 여교사만이 體罰을 주는등의 節制가 지역에 따라 요구된다. 이런 전제 아래 76년에 있은 體罰소송에서 영국법원은 體罰이 불법 아니라고 판결했다.

미국의 경우도 공립학교에서의 體罰이 합법이란 대법원판례가 지난 75년에 나와있다. 뉴욕州에서는 써교육위원회가 體罰을 규정한 옛날州法을 폐기하자는 결의를 했다가, 교장들의 異議로 4개월만에 번복, 體罰을 교육區 재량에 맡긴것이 재작년 일이다.

이처럼 體罰의 可否논의는 여러나라에서 들고본다. 세계 1백6개국을 조사한 어떤자료(77年度)를보면①법으로 體罰을 금지한나라가 57개국 ②관례로 인정치않는나라가 20개국 ③법으로 體罰을 인정한 나라가 15개국 ④관례로 인정한 나라가 14개국이다. 이가운데 우리나라는 ④에든다. 그같은 판례가 79년大邱高法에서 있었다.

대개의 경향을 보면 大陸法系의 나라는 體罰을 法禁하나, 英美法系의 나라는 體罰을 인정하고 있다. 成文法으로 고매한 교육이념을 내 걸기 보다는 구체적 경험과 지혜에 근거한 判例法이 體罰의 효용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관념은 英美法系의 나라와 비슷한것같다. 내생각도 거기에서 과히벗어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體罰이 없으면 훈육이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보기에 달렸다고 하겠으나, 교육의 말뜻만으로도 교사에게는 징계의 권리가, 그 「최후의 수단」으로서 體罰이 인정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體罰은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교사의 권리로만 유보된 상태로 있는 것이 바람직 하다. 體罰에는 스스로의 限度와 節制가 있어야 하고, 어떤 경우의 體罰이건, 매를 들지 않고 교육목적을 이룸만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나라 하교를 들여다보면, 限度와 節制가 없는 體罰이 너무 흔한것같다. 體罰은 過大학교·過密학급의 학생들을 제압하는 방편에 불과하고, 감정을 노출시킨 과도한 매질의 예를 종종 듣는 것이다. 이따금은, 이래가지고 말썽이 아니나면, 학생들사이에 暴力풍조이 일지않으면 이상하겠다 싶어진다. 그런바에야 體罰法禁論이 옳을것도같다.

그런 생각을 하던차에 民正黨의 敎權保護特別法구상(본보 25일자 2면)이 보도되었다. 그 구상은 교사의 학생처벌에 대하여, 故意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교사는 그 결과의 民事·刑事책임을 지지않으며, 교사에 대한 폭행·협박·모욕등을 가중처벌하고, 교사에 대한 수사는 교장의 동의를 얻어, 금고1년 이상의 重犯이 아니면 불구속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구상의 배경을 뒤집으면, 우리 선생님들은 體罰에 대한 법적제재, 校內暴力, 경찰수사 때문에 敎權을 잃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과연 큰일이다. 교사직이 그렇게 위험한 자리인 줄은 미처 몰랐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이 물음을 교사들이 긍정하고, 학부형들이 수긍한다면 그런 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만 「법의 평등」이란 헌법조문을 읽어 본 뒤에….

학생의 징계는 교사의 당연한 권리다. 그것을 교육법이나 교육공무원법에 明文化할 수는 있다. 그 때도 권리의 행사가 지나친것은 불법이요, 불법에는 당연한 제재가 따른다. 피해자는 그렇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 교육자라고 어찌 자기행위의 결과에 대한 과실책임을 안지겠다고 할수있는가. 그 特權에 가린 남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가.

마찬가지로, 모든 폭력적인 행동은 처벌을 받아야 하고, 수사는 신중해야 한다. 교사에관계된 사건일 경우, 그에 대한 처벌이 더욱 엄중하고, 수사가 더욱 신중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의 법테두리 안에서의 情狀論과 良識에 속할일이다.

그러잖아도 우리 法制―특히 刑事法은 特例法이 너무 많은 것이 흠이다. 그래서 刑事法을 통합·정비하기로 방침을 정한 집권당이 또 다른 特例를 만들다니 앞뒤가 맞지않는다. 집권당이 할 일은, 교사들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하여, 刑事法이 情狀에 맞게, 良識을 따라 운영되도록하는 것이다. 그 일이 잘되면 유독 교사들만이 수사기관을 겁낼 까닭이 없지 않은가.

교육공무원법 제43조는 이렇게 말한다. 『①교육공무원은…형의 선고·징계처분,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기 의사에 반하여 休職·降任·辭職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교육공무원은 권고에 의하여 辭職을 당하지 아니한다』지금 법이 이러한데 굳이 「本意아닌 辭表」「一括辭表」로 해임할 수 없다는 特別法은 왜 있어야 하는가.

요컨대 敎權을 지키는 法制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이 지켜지지 않는다는데 문제는 있다. 지금 있는 법을 지키고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하는 것이 常道인것이다. 敎權의 법적 뒷받침은 그 것으로 족하다. 더이상의 것, 法理를 넘어서서 特權을 요구하는것은 「法의 領域」과 「敎育의 領域」을 혼동함이며, 黃金萬能主義못지않은 法萬能主義의 해독을 자초함이다.

이번 特別法구상은 敎權침해 유형을 ①교사와 학부형②교사와 재단 ③교사와 수사기관의 3측면에서 파악한 것 같다. 여기빠진것이 정작 敎權을 크게 침해하고 제약하는 교사와 교육행정의 관계다. 획일적인 지침으로 교육의 自律을 해치고, 강압적인 규제로 교육분위기를 위축시키며, 集權的인 행정운영으로 교육자치를 無實化하는 교육행정의 폐단―더구나 그것이 다분히 越權·恣意的일 때, 그것을 그냥두고 敎權이 설땅은 어디인가.

이렇게 행정에 놀린 교사像은 손발묶인 巨人이나 같다. 그의 손발묶인것은그냥두고, 집권당은 그에게 特別法이란 갑주를 입히자고 한다. 손발을 묶고 갑주를 입히고―그것은 웃지못할 교육의 戲畵다.

이땅의 학부형된 처지에서, 어제 기사를 부끄럽게 읽었다. 그 原案이 敎聯것이란 말을 알고는 착잡한 생각이 들었다. 우리 교육의 危機를 실감하면서, 비슷한 감회에 잠긴 현장교사가 없지는 않았으리라 믿는다.

敎權은 꼭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같은 特別法구상으로 敎權이 확립된다고는 생각않는다. 너무나 한국적인 너무나 非교육적인 현실앞에, 교사와 학부형이 함께 생각할것이 너무나 많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226>

朴婉緖 作 / 金光培 畫

미리 온 아이 ㉙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그날의 주인공은 아기였다. 오목이는 아기를 위해 예쁜 옷도 사고 태어나서 한번도 깎은 적이 없는 아기의 머리도 보기좋게 가다듬었다.

손님들한테 칭찬받고 귀염받기위해 목욕하고 새 옷입은 아기는 아침부터 범실범실 웃었다. 오만가지 화초중에서 으뜸가는 화초는 인화초(人花草)라던가?

보면 볼수록 잘생긴 아기였다. 오목이는 문득 안돼! 아라고 부르짖었다. 그러나 아기속에 뚜렷이 자리잡은 인재의 모습을 무슨수로 몰아낸단 말인가. 다행히 인재를 아는 사람은 오목이밖에 없었다. 그래서 아무도 아기속에 인재도 알아보지못했다.

아기의 백날음식을 배불리 먹은 동네사람들은 제각기 아기에게 덕담을했다.

녀석 대장감이군. 아냐 재벌났어. 재벌. 그까짓 재벌은 법관이되거라. 법관이 돼서 삼동네사람 억울한일 당하면 빽좀 써주렴. 녀석 머리통이 남북이나온게 아이큐높게생겼어. 외국가서 박사따다 교수노릇하면 잘하겠는데. 이왕이면 의학박사를 따서 개업을하든지, 사내녀석이 너무잘생겨서협이로구먼. 여자께나 따르겠어. 이왕이면 부자집외동딸로 골라잡어라잉?

산동네 사람들은 그들의상식과 상상력을 총동원해서이렇게 아기에 덕담을했다.

저녁때는 사장님이 가게식구들이 손에손에 선물보따리를 들고 들이닥쳤다. 잘얻어먹고 기껏해야 싫이나 한타래 목에걸어주고간 동네사람들은 직장손님까지 초대한 백날잔치를 부러워도하고 시기도했다.

부자집에선 백날잔치 돌잔치 할만하다니까. 팔삭동이네도 잘하면 밀천 빼겠는데.

동네사람들의 입방아에 의해 오목이네는 부자행세까지하고 있었다. 과연 사장님이 술자리에 들어가 선물보고나온 아기의 꽃봉오리같은 손엔 금반지가 반짝거리고 있었다.

오목이의 부엌일을 거들어주던 셋방여자들이 일제히 란성을 질렀다. 그여자들은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있었다.

그러나 오목이는 그때부터 뒤죽박죽이었다. 술잔이 모자란다는데 밥공기를 들여가기도 하고 맨손으로 끓는국대접을 들어올리다 손을데기도 했다.

『허어, 그 녀석 훤하게 잘생겼다』 자네 안닮았어.』 개천에서 용났다면. 개천에서 용났어』

사장님이 술이 거나하게취해서 하던말이 귀에 들어붙은 것처럼 떤 소리는 하나도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모든 사람들이 사방에서그 말을 받아서 수군대는 것같았다. 개천에서 용났대, 개천에서 용났대. 개천에서 용났걸 누가 믿어? 글쎄 개천에서 용이 났다면 나줄 알라니까.

술자리에서 손뼉치는 소리가 짝짝짝 났다.

어머님의 손을 놓고 돌아설때엔 부엉새도 울었다네 나도울었오.

일확이의 목소리는 꺼이꺼이 우는것처럼 탁하고 쓸데없이 떨렸다.

다시 손뼉을치는소리, 남자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여기저기서 수군대는 개천에서 용났대라는 속삭임을 지우진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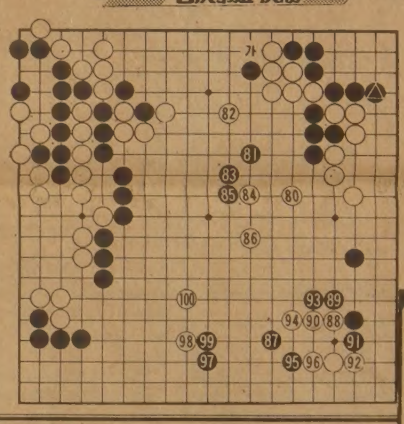
개천에서 용났단소리에 깊숙이 찔린채 태연한척 유행가를 뽑은 일확이를 상상하는건 고통스러웠다. 사장님일행이 돌아가뒤 오목이는 지저분하게 뒤섞인 술상사이에 일더기처럼 구겨진채 코고는 누환이를 안아일으켰다.

제14기 名人戰 3次予選 決勝

第3局 第5譜 80~100 (각4시간·덤5집반)

白(7段) 鄭昌鉉

黑(4段) 李相澈



黑、快調의 進軍

鄭7단은 순간순간 번개처럼 떠오르는 「감」을 그대로 판에다 연출한다. 소탈한 성품도 곁들여서 마치『몸을 들었다가는 모처럼의 영감이 날아간다』는 식.

이따금 속기로 빚는 작전실패가 문제는 문제지만 본인은 『나참!』하면서 태연 자약이다.

전보에서 우상귀 작전을 실패하더니 白80으로 공격개시. 좌우간 초지를 관철할 요량이다.

黑81, 83은 무거운탈출같지만 좌측에 黑세가 대기하여 별탈은 없다. 그리고 상변에는 黑「간」등으로 白집을 유린하는 맛도 있다.

이 것으로 대세는 일순에 역전, 黑이 재미있는 바둑으로 변해가고있다.

白84, 86. 이제 우변白은 黑▲로인해 근거가 부실한때문에 오히려 달아나는입장이 되었다. 黑은 87에 선착하여 일단호조. 白88하 黑97까지는 이경우의 정석이며 당연한 과정이다.

그러나 鄭7단이 국후에 못내 뉘우친것은 한편 97근처에 『왜 白이 먼저 두지 않았느냐』는 점이었다.

어느때가 그적시인지는 확인을 못했지만 좌우간 白98, 100등으로 삭감을 서둘러야한다는 그자체가 못마땅했던 모양이다.

李4단은 열심히 다음 작전을 구상한다. 가능하면 白100쪽과 우변을 양곤마로 만들어야 할판인데 그게 여간 어렵지않기 때문이다.

【一凡】

거구장

결혼·회갑·생일잔치·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가수 : 김미리자 BAND—기타 : 신상철 / 올겐 : 함효상 / 드럼 : 권순근

월~목 : 오후2시~새벽2시
금 : 오전11시~새벽2시
토~일 : 오후2시~새벽2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한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LEASE 취급함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진짜 일본음식

스시, 스끼야끼, 뎀부라등등

~~ MASA ~~ JAPANESE RESTAURANT

195 RICHMOND ST. W. (at Simcoe) TORONTO

977-9519

교회창립제6주년기념

특별신앙사경회

본 미시사가 연합교회에서는 창립 제6주년을 맞이하여 다음과 같이 특별 신앙사경회를 마련하고 교포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강사 : 양희철 목사 (뉴욕 Forest한인장로교회 시무)
시일 : 1982년 10월9일(토), 10일(일) 양일간
9일(토) : 오후7시30분
10일(일) : 새벽6시, 오후2시, 오후7시30분
장소 : 미시사가한인연합교회
주소 : 2500 MIMOSA ROW MISSI. ONT. (HWY10 & HWY5 safeway shopping Mall 뒷쪽)
☎ : 276-5163(교회)
☎ : 277-2394(사택)

미시사가한인연합교회
교우일동

한국관

기계로 뽑는 냉면·짬뽕·짜장면 해장국·곰탕 전문

628 Bloor St. W. ☎ : 531-0277

종교서관

535-1920

서적판매및 대여
일반서적
다량입하

월~토 : 오전10 : 30~오후7시

714 BLOOR ST. W.

교회안내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가나안교회	이정준	주일오후 1:30	1428 Royal York Rd. (at Eglinton Av.W.)	244-2801 742-7010
갈보리교회	안병한	주일오전 7:30 영어설교 오후1:30 오후 2:00 금요저녁 9:00	3817 Lawrence Ave.E.	755-7979 431-3635
시민교회	조성관	주일오후 2:00 금요기도 밤9시 유년중고장년모임 : 3시 20분	662 Pape Ave. Tor	266-4918
대한교회	조남유	주일오후 2시	3819 Bloor St. W.	821-6340
순복음토론토	이필주	주일오후 2:00 금요기도 8:00	1 King St. Weston	881-7162 247-9577
메시아한인교회	조창환	주일오후 1:30 영어예배 12:30 새벽기도 6:00 (오전)토 수요예배오후 8	1580 McCowan Rd.	298-1876
딕시한인장로	차주섭	주일새벽 6:30 주일 낮 12:00 주일오후 2:00	3065 Cawthra Rd. 미시사가	279-4356 279-6388
런던제일교회		주일낮 11시 수요예배 8시 주일찬양예배7시 주일새벽기도 6시	135 Briscoe St.E.	686-6302 전화선교 439-6331
런던한인교회	신용규	주일오전11:00 금요기도 밤10시 주일오후 1:00	530 Topping Lane London	473-5257 686-0224
성도교회	김용진 적춘수	주일오후 1시30분	87 Elmhurst Dr.	745-7370
반석교회	양세주	주일오후 1:30 토요기도 밤7시 성경공부 2:40	2840 Weston Rd. at Albion	746-5010
벧엘교회	최상봉	수요저녁 7:00 주일오후 1:00	395 Old Yonge St.	496-2967 221-1382
빌라델비아장로	김경진	주일오후 1:30 수요오후 7:00	7 Gretna Ave.(Victoria Pk.& Lawrence)	281-5706
새예루살렘교회	김승환	주일오후 2시 수요새벽5:30 중고등영어 오후1시 금요저녁7시30분	5 Grenoble Dr. Don Mills	429-1430 429-2685
선교교회	강제철	주일오후 1:00	1 Greenland Rd.	444-8002
서머나감리교회	박준하 김옥희	주일영어 1:00 주일성경 1:00 주일예배 2:00 수요예배 8:00	75 Canterbury Place Willowdale, Ont.	498-7960 752-9860
대한수도원	조권사	철야기도 금 밤11시 평일기도 오후2시 토요집회 오후2시 또는 수시	100 Lawlor Ave.Tor.	698-5363
베다니성결교회	김요환	주일오후 1시 성경공부 주일 오후3시	2799 Weston Rd.	248-9709 248-1653
성산교회	계화삼	주일예배 11:00 12:30 수요오후 7:30 토요일오후7시30분	1239 Jane St.& 1384 Weston Rd.	248-4130 233-2266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순복음카나다	조이식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1030 Albion Rd.	745-3884 743-4813
에덴침례교회	정태진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성경공부	1272 Weston Rd.	242-4964 665-2866
영락교회	김재광	주일오후 1:30 수요저녁 7:30 금요저녁10:30	126 O'connor Dr. at Pape Ave.	423-9880 423-8400 (복음다이얼)
오순절장로교회	장세택	주일오전11:00 금요오후 8:00 주일오후 4:00	754 Indian Rd.	762-1495
임마누엘교회		일요오후 2:00	63 Dunblaine	488-4141
요한웨슬레 감리교회	여용순	주일오전11:00 금요예배 7:30	2385 Warden Ave.	444-8343 497-7122
제일장로교회	김웅출	주일오전11:00 금요오후 7:30 주일오후 1:00 (영어예배)	68 Collinson Blvd. North York	755-9766 636-1724
제7일안식일	박형종	금요오후 7:30 토요오전 9:30 11:00	255 Finch Ave. W.	630-4284
한인중앙교회	정관일	주일오후 1:00 성경공부 2:20 금요오후 9:00	502 Bathurst	961-8361 전화설교
천주교회	고종옥	주일오후 1:00 토요오후 5:30	439 Dundas St. E.	863-0415
침례교회	홍신웅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720 Ossington Ave.	531-7604
충현교회	박경남	주일오후 2:00 주일오후 4:30 수요집회 밤8시	240 Manor Rd.	446-1211
키치너 워터루 한인교회		주일오후 1:30	54 Queen St. N. Kitchener	(519) 579-1819
펜티코스탈교회	심상대	주일오후 1:00 (영어예배) 주일오후 2:00 (대예배)	300 Queen's Dr.Tor.	223-1914
한인장로교회	박희민	주일오전11:00, 수요오후 7:30 T.V. 예배 8:30~9:00A.M. CH.79	1183 Davenport Rd.	535-6864 532-2121
해밀턴연합	김낙중	성경공부 2:30 예배 3:00 주일학교 3:00	1570 Main W. Hamilton	627-4329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국인 유일의
야채·과일·화초 도매상
◉각종 Plant
◉저렴한 가격
◉품질 보장
463 Carlaw Ave.(at Gerrard)
전화 : 465—8167 대표 곽 덕 렬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범한서적
◉한국전집류 ◉고전, 현대소설
◉유치원 백과, 새생활 백과사전
◉사전류, 가정요리, 꽃꽂이 ◉광복20년
1712 Queen E. 전화 : 690—2216
북미주총판책임자 최 규 흘

사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 (R)654—5691 · 전화 : 535—7772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생선

K & R Sea Food
▲얼리지 않은 각종생선. ▲싱싱한 횟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전화 : 259—1585

소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설계및 실내장식, 전물구조변경, 지하실 꾸밈,
Paint,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전기제품 포함)
전화 : 425—8585, 535—4441(R) Mr. Kim

"집수리·신건축·목수일" 합니다.
빈가게및 건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틸 셀빙,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 시공.
언제라도 전화 상담 환영.
전화 : 669—5784 (Mr. 심)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목수일 합니다.
◉제네랄·콘트랙터 면허취득 ◉각종건축수리및 신축상담
전화 : 249—0003 Mr. 최

식당

CHOI'S RESTAURANT
메뉴: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밤12시까지, 목금: 낮12—밤1시까지
토: 낮4시30분—밤11시반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Rose Garden(중국집) 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일류요리사, 홍콩식 중국요리 취급.
전화 : 656—0456, 654—6609 유 창 균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식품점

삼복식품. (주7일 영업)
금요일 밤12시까지. 일요일 오후4시~오후10시까지
제일좋은 물건만을 골라, 제일 싼값으로 책임있게 봉사합니다. 여름철 야외 바베큐는 맛있고, 살많은 삼복갈비를 이용하세요. 시내어디든지 무료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밭 식 품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 274—540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 — 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마련.
전화 : 532—1054(아리랑식당 옆)
712 Bloor St. W. 김 덕 기

서 울 식 품 (동부)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서울식품 (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 243—9544

실내장식

Office·Store·Restaurant·Residence
Design, Permit and Construction
FINE DESIGNS 622—5328 조 덕님

악기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장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530—1870
오전 11시~오후 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의류수선

양장 맞춤·주문배수(수리는 남녀양복 모두 취급)
여성복 Design 변경 또는 재단만 원하셔도 해드림
100 Glenshields Ave. 전화 : 669—5784 Mrs. Kim

액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여행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B) 임 태 호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운전학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운동구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인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대표 : 이 인 용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37 Primrose Ave. Toronto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 이 영두·이건화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장의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721 Bloor St. W.(at 크리스티 써브웨이)
전화 : 536—6250 호세환, 530—1222 Mr. 왕

카펫·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쉐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태권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완인태권도 完仁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T·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T.V 수리는 431—0102
전화 : 431—0102 Mr. 박

페인트 · 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
전화 : 731—4204 (Mr. 신)

하드웨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방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각종 디스토마 특효약 입하.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전화 : (B)536—6854, (R)226—3874 시 춘봉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 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경명등 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R)531—4165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 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료법·지압·단식료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광 고 접 수
533~2361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회계사무소
33 Cherryhills Rd. Concord. Ont.
전화 : 669—2710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일보 안내광고＊ 한국안내광고에서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8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531—4165(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인

유경험자 Cashier 구함(남)
남자학생으로 Part Time원하시는분 환영
900 Queen St. E.(at Logan Ave.)

파타임 스토아 헬퍼 구함. (남녀불문)
스카브로 지역
전화 : (B)261—2978, (R)752—9332 리

남자 웨이터 급구
628 Bloor St. W.

성실한 Full Time 여자 캐시어 구함
제랄드 & 콕스웰
전화 : 465—6885

식품점에서 일하실 건장한 남자분 구함
능력에 따라 우대함
전화 : 532—1054(제일식품)

여자용 코트등 의류품 만드는 회사에서 양재 또는 재봉일에 경험있으신 분 약간명 모집.
★ Sewing Machine Operators
★ Cutters ★ Pressers
Irving Posluns
637 Lakeshore Blvd. W.
Call 591—7128
Evening After 7시 270—1981(Mr. Arbour)

Dunut Shop에서 일할분 구함.
시간: 밤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Sunday Night 부터
Friday 오전 8시까지. 전화 : 482—4088

Leading clothing manufactures requires payroll clerk to calculate and record weekly piece work payroll. Apply: 637 Lakeshore Blvd. W. Tor.
Tel: 591—7161

가정교사 하실분(하루3시간씩 — 주5일)
(7살, 9살) 전화 : 762—1572

집에서 일하실 할머니 급구
(숙식제공) 전화 : 762—1572

개인지도

바이올린 교습생 모집
전화 : 535—0708 박 명 진

구혼

결혼상담, 전자침 (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 (18부터 60세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최·김

German—Canadian(백인)으로 37세임.
한국인 여자친구 원함.
전화 : 1—727—6490(Gert)

기타

걱정이 있으신 분은 오십시요. 636 Vaughan Rd. #1
Card, 손금, Tarot등으로 당신의 걱정을 해결해 드리겠읍니다. 전화 : 652—1280 (Mrs. Adroe)

베비시터

5살난 여자아이 보아주시면서 살림 도와 주실분.
(10월15일경부터 입주 가능한분)
전화 : 274—8439(R) 278—4867(Mrs. 옥)

입주하셔서 8살된 여자아이 보아주시고
가사일 좀 살펴주실분 구함.
전화 : 624—5897

입주하셔서 애기봐 주실분 구함
전화 : 282—6223 (집)
839—8438 (가게)

입주 또는 출퇴근 하시면서
애기 봐주실분.(Steel & Pharmacy)
전화 : 496—1664 Mrs. 리

매매

Hardware Store for Sale
Finch Ave.(토론토 북쪽지역) Very Good Business
(안정된 사업) 전화 : 654—6600(Domenic)

〈채소 염가 판매〉 미시사가 농장
◉판매시간: 10월, 11월은 토, 일, 공휴일 Open(시간 오후1시~6시)
◉판매방법: 칼과 Box를 준비해 오셔서 직접 뽑아가십시요.
◉채소종류: 배추, 각종무우(김장용)
◉장 소: 에그린톤과 Hwy 10에서 서쪽으로 1 마일 가면 두번째 라인 있음. 여기서 북쪽으로 500m가면 농장이 나옴.
◉연 락 처: 622—5509. — 미시사가 농장 —

건물 & 비즈네스 매매
(1) 매상 4,500 이상(W)
아스킹: $155,000(Hamilton)
(2) 매상 4,000—W.
아스킹: $99,000(Toronto)
전화 : 535—0028 Mr. Kim

각종 알로베라제품 판매. 쥬스·크림·로숀·약용크림외 다수품목 보유, 최저 염가 봉사합니다.
5439 Yonge St. 전화 : 222—4717 Mrs. 김

Variety & Grocery Store for Sale
여자분 혼자서 운영가능. 주6일 오픈. 월순이익 $2,000이상.
Lottario Machine있고 Plaza안에 있는 Store. 241—5419

토론토에서 가장 사람이 많이 붐비는 Mall안에 있는 장소.
2,500 sq.ft. 단, 하드웨어 비지네스 하실분만 문의바람.
전화 : 486—0397 김.

가정형편으로 급매. (Grocery Store)
(스카브로 지역) 좋은 조건으로 팔고자 함.
전화 : 431—0979

Variety Stores
1. Ajax: W.T.O: $7,000 Rent: $1,260(M.)
리스: 6 years+5 years. 1,800 sq.ft. Asking: $75,000
2. Oshawa: W.T.O.: $8,000 리스: 6 years. Asking: $60,000
3. Oshawa: W.T.O.: $3,500. 리스: 6 years. 렌트: $500
아스킹: $29,900
Bagot Realty Inc. Realtor 1—579—4010
after hours. Frank Magnus 683—8154

Building내에 있는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넓이: 2500 sq.ft. Open한지 10개월 정도됨
윗 Building에 간호학교가 있음. 갑작스런 형편으로 발전이 대단히 기대되는 곳이나 최저의 가격으로 팔고자 함. 아스킹: $20,000+스탁(네고.)
단, 모두 Cash 요구. 1—525—2928 (Mr. 엄)

건물과 버라이어티 스토아
주매상: $6,000 별도 입구된 2개의 2Bed Rm.Apts.
Mortgage는 주인이 인수함.
Sincere Realty Inc.
R: Better Call Before 9:00a.m. 444—0674
B: 497—8900

Etobicoke Plaza
3 Brick Stores. Offices own 2nd floor.
151 Foot Deep lot. Lots of Parking.
Asking : $265,000
Call Doris Buruda 763—5555
Cholkan Real Estate

(1)주소 찍는 기계
(Addressergrapher Multigrapher)
◉ 최고속도 시간당 5천개
◉ 철판 Plate 사용
◉ 전기로 가동
◉ 가동비 저렴
◉ 사용 간편
(2)Grapher Typer
Plate에 주소를 만들어 넣는 타자기
전화 : 533—2361

Store for Sale
1년된 New Plaza에 위치한 장래성이 대단히 좋은 지역.
Lambton Gift & Variety 763—7317

Snack Bar Donut Shop &
Video Machine for Sale. 767—3301

성업중인 Variety Store for Sale. 가정사정으로 급매.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겠음. 주매상 : $3,000. 렌트 : $300(M)
전화 : 259—0323

기관및단체

총영사관	598—4608
한 인 회	755—9288
노 년 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 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조흥은행	363—3448
코리아타운빌딩회	532—2727
호남향우회	651—8835
무역진흥공사	977—8784
동 우 회	261—2917
캐나다체육회	533—933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K. A. L.	862—8250

차매매

77년 Chevy Malibu 2 Door. 49,000 mile.
Air—Con. AM—FM 카세트 $2,300 A—1 Cond. Certify.
전화 : 267—4770 Mr. 권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Ossington Subway 근처〉
2층 one bed Rm. 유지비포함 $350/M.
지하실 유지비포함 $150/M. 전화 : 531—3656

Victoria Subway 건너편 (Condominium)
3 Bed Rm. $700/M.(유지비 포함)
전화 : 698—1347 694—4812

One Bed Room 아파트 세놓읍니다.
College & Dovercourt
전화 : 531—6183

집렌트

4 Bed Room House전체를 세놓고자함(Brampton지역)
2 Bath Room, Family Room, Fire Place, 차고등,
학교와 Shopping plaza근처에 있음. 593—8943

단층집(Semi Detaches) 4 Bed Room 세놓음.
Home Bar등 지하실 꾸며져 있음. ($650/M)
스카브로지역(Neilson & Sheppard). 전화 : 968—9450

부동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 용 현 부 동 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차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가구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300 Yonge (영 × 에그링톤)
전화 : 486—0397 (김 만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 석 민

간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관 광

코라메 관광(주)(제일여행사 2층)
일년내내 관광을 함께·····
649 A Bloor St. W. 전화 : 535—0853

귀금속수리

M & J JEWELLERY REPAIR시계 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 (Kipling×Albion)
전화 : 742—1205(B) 743—4842(R) Mr.마

꽃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 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7—6711(R) 이 동환

제인·파크 꽃집(JANE PARK PLAZA안)
각종 파티·생일·결혼·장례꽃 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622—8516(B). 279—3719(R)허소피아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먼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 960—6265 Mr. 김

도서판매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242—5774 (Mrs. 김)

룸메이트

Room Mate 구함
5 Capri Rd. 오후 2시전에 연락바람.
전화 : 622—3065 Miss Kim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쓰
WESTON MALL(웨스톤 × 윈치)
전화 : 746—3458

광고문의 533—236.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5시 이후)

미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여드름. 주름살 치료 전문
◉남녀 파마. 커트 전문.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미술연구소

U.C.Painting Studio
미술 개인지도. 유화·수채화·뎃상
전화 : 530—4991

삼우스튜디오(SAM WOO STUDIO)
Free Workshop(성인 미술교실)
58 Wade Ave. Tel : 537—7630

변호사

"이민법과 그에 따른 제반업무 전문"
새로 이전한 주소: 390 Bay St. 19층
Tor. Ont. ▲ 361—0404
▲ 593—1818
Barrister and Solicitor
SHELDON M. ROBINS

보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배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791—8196

비데오 센타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빵 집

Health Bread Bakery
결혼·생일·파티케익등 전문 (배달가능)
534 St.Clair Ave. W. 전화 : 653—1149 Mrs.배

사무용구및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보증)
전화 : 252—7377 (R)762—4536 Mr. 안 수일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